

부깅내

2026년 3월호
춘천시 시정소식지



목 차

2026년 3월호 MARCH 2026

🏠 bomnae.chuncheon.go.kr

📺 chuncheon.e

📺 chuncheonsi

📺 chuncheon_go



4 춘천은 지금 I



불은 없었지만 현장은 움직였다

산 위 훈련과 산 아래 점검,
춘천시 산불예방 현장을 기록했다.

10 춘천은 지금 II



지역 경제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공동체 문화가 꽃피는 활기찬 골목상권을
만들기 위해 춘천시가 나섰다.

14 트렌드 춘천



꿈나무가 자라는 어린이 건강체험관

어린이들이 오감을 통해 건강한 습관을
익힐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한다.

20 시정뉴스

'노인복지명예지도원' 도입 외

22 봄내 한 컷

빙어 낚시 외

26 우리들 이야기

김주희 님 외 4건

28 최돈선의 발견

그 집은 녹두란 말이 없어도
녹두꽃 내음이 난다

32 누군가의 춘천

효자동 병아리

34 도란도란

'만화에 빠진 소녀,
VFX 아티스트가 되다' 외

38 의회소식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16 봄솔랭 가이드



로컬푸드 산나물편

춘천의 봄맛 도감, 제철 맛은 봄나물이
기지개를 켜다.

24 스포츠 도시 특집



시민이 만들어온 배구의 땅

불모지라는 편견을 깨고, 스포츠 정신을
이어가는 춘천의 배구인을 만나본다.

41 이달의 책

수수바와 아기참새 외

42 봄내아트

이 달의 문화예술 소식

44 봄내골 소식

춘천시 미담 사례 소개

48 주민자치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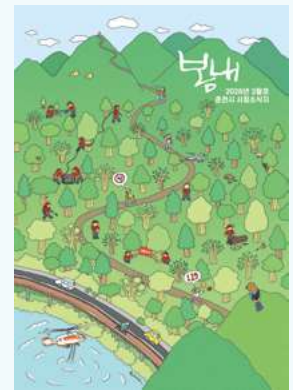
2026년 2분기 프로그램 안내

53 알림마당

시정정보, 체험행사, 모집안내 등

62 독자와 함께

독자편지, 낭만수달 영달이 12편



<표지> 산불조심의 시간

불 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작가 슷카이

봄내 422호 2026년 3월호
비매품

창간일 1993년 1월 25일

발행일 2026년 3월 1일

발행인 춘천시 부시장

총괄 춘천시 홍보담당관

에디터 한수지 권소담

디자인 임윤선

편집위원 박종대 정현경 서승진

김정숙 김보건 장병선

인쇄 참조은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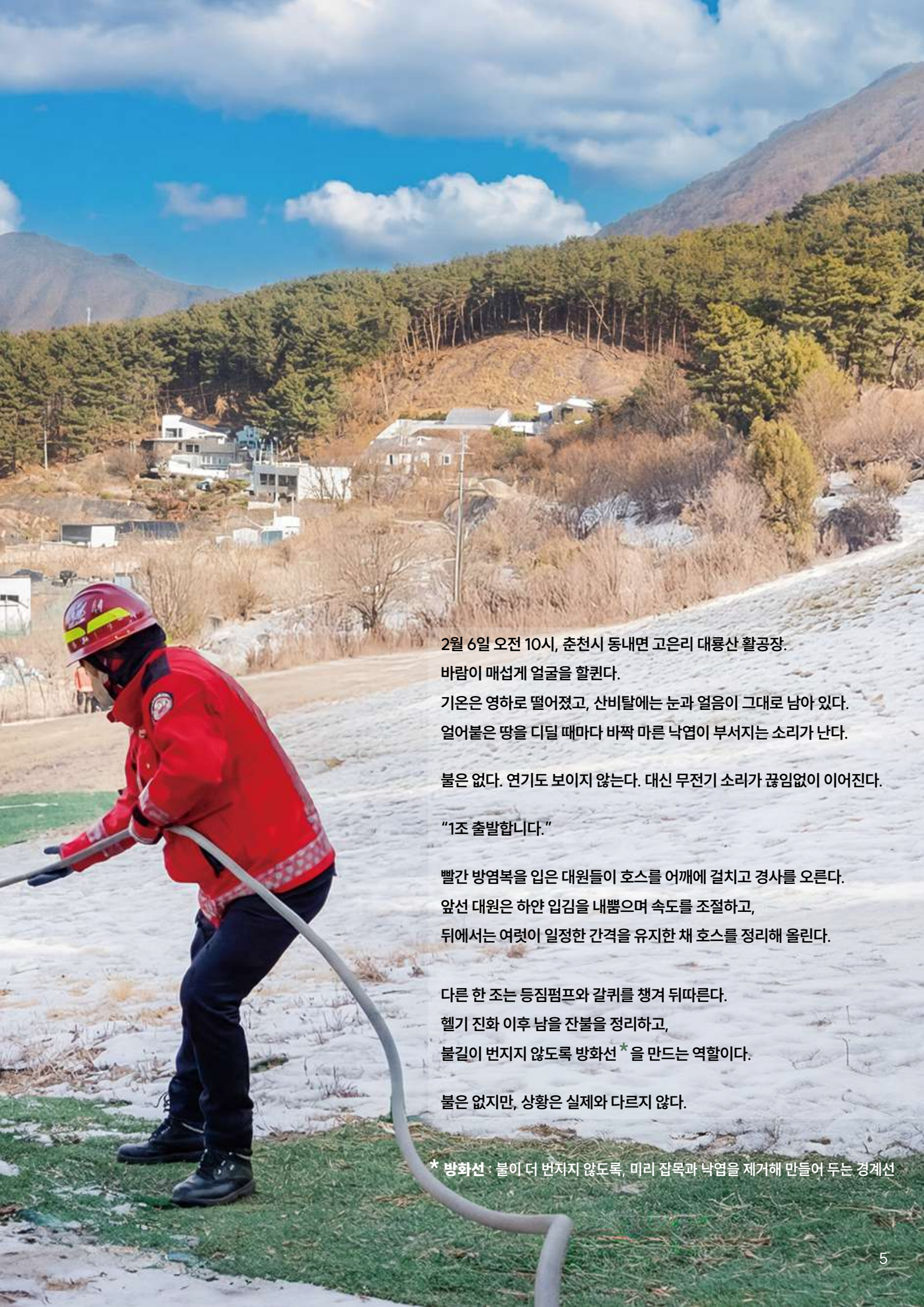
문의 ☎250-3229



불은 없었지만, 현장은 움직였다

글 한수지 사진 윤현





2월 6일 오전 10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대룡산 활공장.

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할킨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산비탈에는 눈과 얼음이 그대로 남아 있다.

얼어붙은 땅을 디딜 때마다 바짝 마른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불은 없다. 연기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무전기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1조 출발합니다.”

빨간 방염복을 입은 대원들이 호스를 어깨에 걸치고 경사를 오른다.

앞선 대원은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속도를 조절하고,

뒤에서는 여럿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호스를 정리해 올린다.

다른 한 조는 등짐펌프와 갈퀴를 챙겨 뒤따른다.

헬기 진화 이후 남은 잔불을 정리하고,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만드는 역할이다.

불은 없지만, 상황은 실제와 다르지 않다.

* 방화선 :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미리 잡목과 낙엽을 제거해 만들어 두는 경계선

불이 없는데도 훈련을 멈추지 않는 이유

이날은 춘천시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산림재난대응단의 정기 산 불 진화 훈련 날이었다. 대룡산에 모인 대원은 모두 24명. 방염모와 방화복, 안전화를 갖춰 입은 이들은 12명씩 두 개 조로 나누어 미리 짠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였다. 동선도, 역할도 실제 산불현장과 다르지 않았다.

잠시 훈련이 멈춘 사이, 조장 정상호(64) 씨가 대원들 앞에 섰다. 18년째 산을 오르내린 그는 거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건조할 땐 하루에 네 번씩 출동한 적도 있어요. 초동 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알게 됐죠.”

산불은 초반 30분이 승부다. 불길의 능선을 넘기기 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불이 없을 때도 같은 훈련을 반복한다. 영하의 날씨에도 호스를 메고 산을 오르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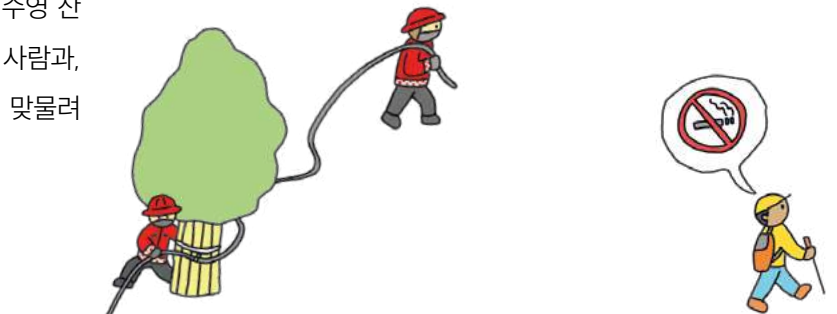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신강철 산림과 주무관이 훈련일지를 적고 있었다. 어느 지점까지 진입했는지, 교신은 원활한지, 장비 이상은 없는지, 훈련 과정은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았다. 김수영 산림방재팀장은 현장을 오가며 전체 흐름을 점검했다. 뛰는 사람과, 그 움직임을 조율하는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톱니처럼 맞물려 움직였다.



훼손된 현수막을 바로 잡는 대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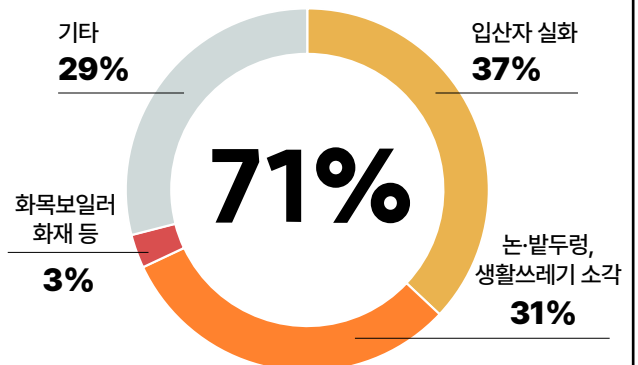


신강철 주무관이 진화 훈련과정을 점검, 기록하고 있다.



산불 주요 발생 원인

산불은 자연재해처럼 보이지만, 전체의 71%는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불을 다루는 일상의 선택, 그 작은 습관이 도시의 안전을 만든다.



산비탈에서 호스가 나무에 걸리지 않도록 도르레로 물길을 확보하는 훈련

이들은 훈련만을 위해 모이지 않는다. 산불조심기간인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예방순찰과 캠페인에도 투입된다. 겨울 산에 올라 바짝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 사이에 발화 물질이 없는지 살피고, 하루 두 차례 산과 인접한 마을을 돌며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훼손된 현수막을 다시 거는 일도 대원들의 몫이다. 대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지만, 매년 체력 검증을 통과한 베테랑들이 다. 평균 경력은 7년에서 15년 사이.

16년 차 지재빈(62) 대원은 말했다. “예전엔 쓰레기 태우지 말라고 막으면 화내는 분도 많았죠. 그런데 큰 산불 한 번 겪고 나니, 태우기 전에 먼저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김수영 팀장은 “산불은 한 번 나면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불이 없을 때 가장 많은 준비가 이뤄진다. 같은 훈련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다.



산불을 막는 방법은 오직 준비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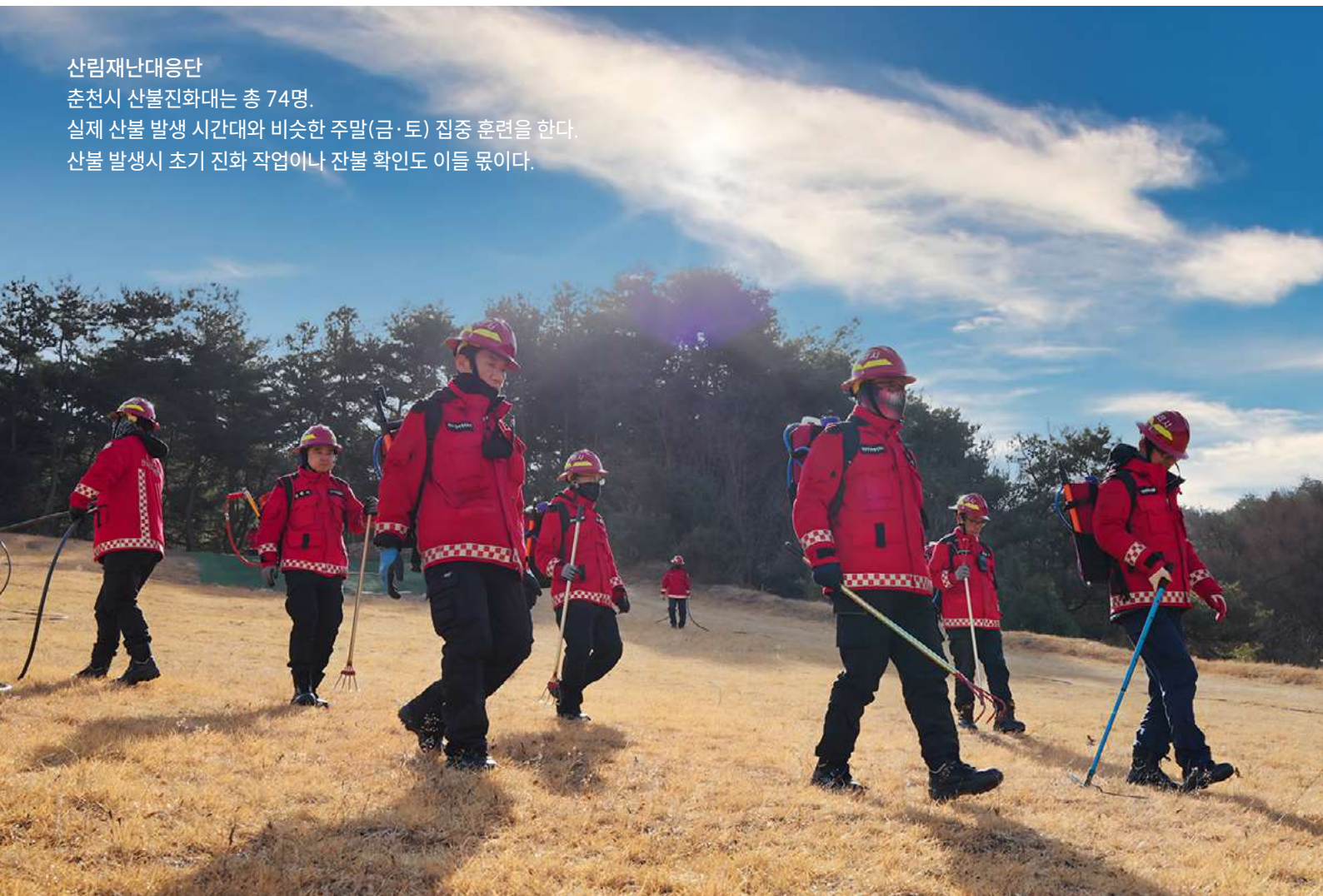
2011년 4월, 신동면 금병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산불.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며 불길은 빠르게 번졌다. 작은 불씨도 기상조건과 만나면 걷잡을 수 없다. 결국 불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사전 준비다.

산림재난대응단

춘천시 산불진화대는 총 74명.

실제 산불 발생 시간대와 비슷한 주말(금·토) 집중 훈련을 한다.

산불 발생시 초기 진화 작업이나 잔불 확인도 이들 몫이다.



산 아래에서, 불씨를 지우다

“우리 동네는 이제 쓰레기 막 태우는 집 하나도 없어요.”

한 어르신이나 손에 쥘 종이를 흔들어 보이며 웃었다. 춘천시 산림과 직원들이 나눠준 산불 예방 리플렛이었다.

같은 날 오후, 신북읍 유포1리 마을회관. 대룡산에서의 진화 훈련이 끝나자, 현장은 산 아래 마을로 옮겨졌다.

이날 유포1리에서는 산불 예방 캠페인이 열렸다. 마을회관 안에서는 산불 발생 원인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안내가 이어졌다. 김수영 팀장은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당부하고, 공동 파쇄 일정을 안내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논·밭두렁 태우기가 왜 위험한지, 생활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시 주의사항도 차분히 설명했다. 산불의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준비한 등산 스틱과 장바구니 같은 홍보물을 배부했다. 모두 어르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물건이었다. 뒷산에 오를 때, 마트에 갈 때마다, 일상속에서 늘 산불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기획한 홍보물이다.

화목보일러
자가 점검표



화목보일러 재처리 용기



춘천의 호수, 거대한 비상 소화전

겨울철이면 산림방재팀의 일정에 또 하나가 추가된다. 저수지가 얼어붙지 않도록 담수결빙 방지 장치를 점검하고, 유지관리 상태를 살핀다. 겉으로 보기엔 고요한 수면이지만, 이 곳이 얼어붙으면 인근 산에 불이 났을 때 헬기와 펌프차가 쓸 물이 사라진다.

영동 지역의 큰 산불이 더 거세게 번진 이유를 설명할 때, 사람들은 바람과 건조한 날씨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주변에 마음껏 끌어쓸 수 있는 물이 부족했다는 점도 빠지지 않는다. 바다가 가까워도 안심할 수는 없다. 염분을 머금은 바닷물은 산림과 토양, 시설물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산불 진화에 활용할 수 없다.



춘천의 호수와 저수지는 그래서 단순한 풍경이 아니다. 산불에 대비해 사계절 관리하는, 거대한 '비상 소화전'이다.



2월 6일 춘천시 산림과,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 공무원들이 신복읍 유폐1리에서 산불예방캠페인을 펼쳤다.

유폐1리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많지 않다. 이날 방문한 윤태봉(74) 씨의 집은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혔다. 재는 전용 용기에 담아 불씨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기다린 뒤 버렸고, 굴뚝 주변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괜히 불냈다가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화목보일러의 연통도 지침대로 T자형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계도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방문이었다.

이날 캠페인에는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 직원들도 함께 했다. 현장에서 예방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해서다. 산림과는 이런 캠페인을 특정 기간에만 몰아서 하지 않는다. 마을을 돌며 반복해서 설명하고,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위험 요소를 조금씩 줄여 나간다.

산 위에서는 산불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이어지고, 산 아래에서는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점검이 반복된다. 같은 사람들, 다른 현장. 춘천의 산불 예방은 이렇게 이어진다.

불길 치솟는 장면은 뉴스가 되지만,
불이 나지 않도록 지키는 시간은 기록되지 않는다.
춘천의 숲이 오늘도 고요하다면,
그 기록되지 않는 시간들이 쌓인 결과다.®

봄내퀴즈

Q. 산불 진화 시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한 작업은 무엇일까요?

- ① 불씨 체포 작전
- ② 방화선 구축
- ③ 낙엽 쓸어담기
- ④ 불명으로 진정시키기



봄내퀴즈 응모하기



산불 신고 방법

소방서 ☎119 경찰서 ☎112 산림과 산불상황실 ☎250-4358



우리 동네 경제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골목마다 희망의 싹 피어난다”

“임대, 임대, 임대” 요즈음 골목상권에는 한 점포 건너 빈 상가가 수도룩하다.

온라인 중심 쇼핑 문화가 자리 잡고 소비심리가 움츠러들수록 풀뿌리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진다.

지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춘천시는 '민생'에 중점을 두고, 소비 진작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덕분에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글·사진 권소담

'민생경제의 원동력' 골목상권 살리기

대표적인 변화는 소비자가 일상에서 자주 찾는 '골목형상점가' 확대다.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는 핵심 점포 중심으로 소규모 유망 골목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4월 중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2,000m²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밀집도 기준을 하향해 현재 7곳인 골목형상점가를 14곳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해당 상권이 사실 상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상인회는 조직화를 통해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상점가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다. 시설·경영 현대화, 주차 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 등을 신청할 자격도 주어진다. 인프라 개선을 통해 더 큰 경쟁력을 가진 상권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게 된다.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상품권을 사용해 저렴한 가격에 소상공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프라 개선과 소비 촉진 행사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으로 북적일 '골목형상점가'의 모습을 AI를 활용해 그려봤다.
위는 강원대 후문, 아래는 뒤뜰 골목형 상점가.

할인TIP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세요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전통시장과 전통시장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상점가(명동, 지하상가, 육림고개, 인공폭포, 요선동상점가),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뿐 아니라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이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가로 충전할 수 있는 데다, 최대 보유 한도를 200만원까지 허용한다. 연말 정산 시 전통시장 소득 공제 혜택도 존재한다. 평소 지역 상권 이용이 활발한 소비자라면 실질적인 할인 효과가 크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



주차 걱정 없는 골목형상점가.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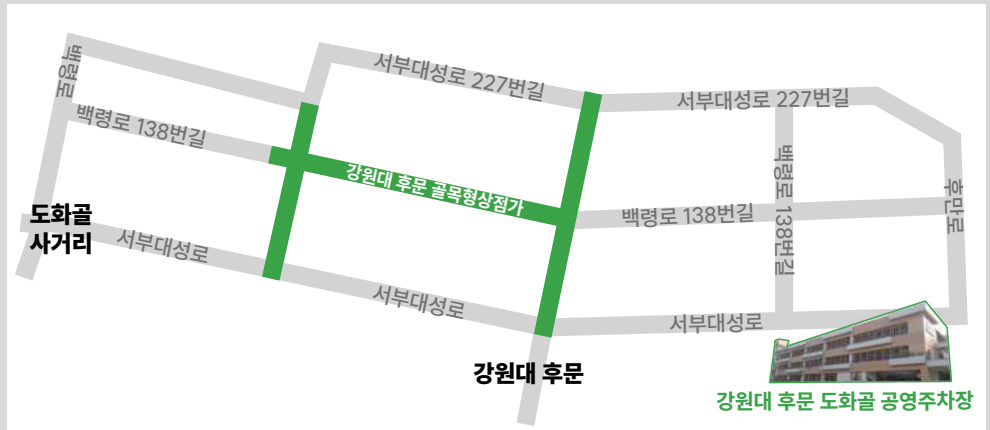


10% 할인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지역 공동체와 함께 문화를
꽃피우는 우리 동네 상권

강원대 후문 골목형상점가

(2022년 7월 지정)



뒤뜰 골목형상점가

(2024년 9월 지정)



골목형상점가란?

전국 지역 상권의 47%는 점포 수 100개 미만의 소형 상권이다. 이중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점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다. 춘천에서는 2022년 강원대 후문, 2023년 후평3동 행복마을, 2024년 뒤뜰과 한림대, 지난해 낙원동, 조운동, 브라운가 등이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이름을 올렸다.



“ 상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지자체와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 환경을 정비하고 있어요.
학생들과 함께 즐길 거리를 만들며
더 활기찬 상권을 조성하려 합니다. ”

김팔성 강원대학교 후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할리스 춘천강원대점 대표)

‘춘천 골목형상점가 1호’ 강원대 후문

2월 3일 점심시간, 방학 중임에도 강원대 후문 상권은 식사하러 나온 대학생들로 분주했다. 학기 중과 비교해선 다소 조용한 편이지만, 침체를 겪고 있는 다른 지방 대학 주변과 비교해 이 일대는 젊음의 활기가 가득하다.

강원대 후문은 2022년 7월, 춘천에서 가장 먼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용해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상인들의 노력과 춘천시의 든든한 지원이 바탕이 됐다. 상인회는 상권의 주요 구역을 보행자 우선 거리로 조성하고, ‘문화가 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했다.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강원형 골목상권 조성 사업’을 통해 이곳에 마케팅과 시설·환경 개선, 상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했다. 골목 가요제 같은 대학 연계 축제,페이백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인 결과, 강원대 후문은 대학생에게 사랑받는 근린 상권으로 거듭났다.

강원대 후문 상권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기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해 프로젝트를 이어갔다. 강원지식재산센터의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크누타운’(강원대학교의

영문 약자인 KNU를 활용한 명칭) 상권 브랜드 개발에도 나섰다. 로컬의 색깔을 덧입히며 상인들이 직접 상권의 역사와 스토리를 담은 브랜드와 캐릭터를 만들었다. 강원대와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고 있다.

노력의 결과는 매출로 이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강원대 후문 상권 요리주점 업종의 지난해 11월 월 평균 매출은 1,150만원으로, 1년 전(1,170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매출 건수는 같은 기간 445건에서 603건으로 늘어나며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서도 활력있는 상권의 모습을 보였다.

주차난 해결, 달라질 상권의 미래

상권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았다. 춘천시는 설 연휴를 앞둔 12일부터 강원대 후문 도화골 공영주차장 운영을 시작했다. 주차장은 내년 1월 말까지 무료 개방할 예정으로, 주차난이 심각했던 상권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무료 운영



춘천시는 2월 12일 강원대 후문 도화골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열고, 주차장 무료 개방을 시작했다.

골목상권 이용 시 주차 걱정하지 마세요!

강원대 후문 도화골 공영주차장이 운영을 시작했다. 주차 불편이 사라지면서 상권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질 전망이다.

춘천시는 골목형상점가 이용객에게 인근 공영주차장 2시간 주차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상인회 소속 가게를 이용하면 QR코드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다. 요금 징수 시간은 기존 오전 8시~오후 8시였던 것을 오전 9시~오후 7시로 개편했다. 주차장 무료 개방 시간을 확대해 상권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각자도생하던 문화에서 벗어나
소상공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간 이후에도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상인회 소속 점포에서 2시간
주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한 기준 완화로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확대될 전
망이다. 기존 기준에 미달해 관습적으로 인식하는 강원대 후문 상
권의 범위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를 계기로 범위를 확장하며 집적 효과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김팔성 강원대학교 후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할리스 춘천
강원대점 대표)은 “상인회 차원에서 대학생과 함께하는 콘텐츠를
만들며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공영주차장이 생겨 주차난이 해결된 만큼, 강원대 후문
상권을 많이 찾아 젊은 감성을 느껴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네가 화사해졌어요” 뒤뜰 골목형상점가

후평동 뒤뜰 상권은 코로나19 이후 대학 공동체와의 단절을 겪
으며 상권 자체가 흔들렸다. 하지만 2024년 9월 골목형상점가 지
정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여러 행사를 직접 기획하며 상권
에 추억이 있는 옛 단골과 시민들을 끌었다. 한 자리에서 오래 영
업한 토박이 상인들이 힘을 모아 ‘사람 냄새 나는’ 상권을 만들어
가고 있다.



뒤뜰 상인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
쳐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야외 골목에서 벌어진 잔치에 시민 수
백명이 몰려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김지영 뒤뜰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사무국장(살루떼베이커리 대표)



물리적 결속력이 강한 전통시장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자연 발
생한 상권에 몰려있어 공동체 의식이 다소 부족했다. 하지만 골목
형상점가 지정 이후 소통과 협업이 더 끈끈해졌다. 뒤뜰 골목형 상
점가 상인들은 ‘추억을 경험할 수 있는 상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에서 출발한 만큼 뒤
뜰 상인들은 단단한 네트워크로 뭉쳤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동네를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
다. 춘천시는 상인회 요청으로 가로등을 재정비하고 야간 유도등
을 설치해 늦은 시간까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춘천시에서 지원받은 수목 색동 피복(가로수의 월동을 위해 설치
하는 보온 장비)을 상인들이 직접 설치하며 동네를 화사하게 바꿨
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까지 직접 기획하며 숨죽였던
상권이 활기를 찾게 됐다.

이런 변화는 상권 활성화로 직결됐다. 뒤뜰 골목형상점가 내 카페
업종의 월평균 매출은 지난해 11월 기준 4,511만원으로, 1년 전
(3,853만원)과 비교해 658만원(17.1%) 늘었다. 매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756건에서 1,858건으로 102건(5.8%) 증가했다. 특
히 주중보다 주말 매출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상권으로 재편된 것이다.

김지영 뒤뜰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사무국장(살루떼베이커리
대표)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상인회라는 경제 협력체를
통해 마을 공동체가 진화하고 있다”며 “뒤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 거리를 확대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상권으로 거듭나겠다”
고 말했다.®



놀면서 배우는 습관 '어린이 건강체험관'

튼튼하고 씩씩한 어린이가 될 거야!

글·사진 권소담

“등근 해가 뒹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래 이 닦자~” 어린 시절 모두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몸을 가꾸고 정돈하는 법을 배웠다. 꼼꼼하게 양치하고, 꼭꼭 씹어 식사하고, 바르게 걸어 유치원에 가기. 세월이 달라졌어도 어린이가 배워야 할 것은 여전하다. 요즘에는 어떻게 바른 생활 습관을 익힐까.

권시훈 군이 겁도 없이 성큼성큼 실내 암벽을 올랐다. 반에서 운동신경이 가장 좋다는 권 군은 “팔 힘이 세서 올라가는 걸 잘한다”며 “밥을 골고루 먹어서 더 튼튼하고 강해지고 싶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권 군을 포함해 갓 6살이 된 명문유치원 넷물소리반 어린이 13명이 찾은 이곳은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어린이 건강체험관. 새로운 놀잇감을 발견한 어린 눈빛이 빛났다. 신나게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식재료를 직접 골라볼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무럭무럭 자라라 '건강 꿈나무'

춘천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체험 중심의 공간을 마련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과 운동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감각을 경험하며 신체를 움직이는 방법과 사회성을 배울 수 있다.

명문유치원 넷물소리반 어린이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체험은 '디딤 놀이터'였다. 증강현실(AR)과 동작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구현된 놀이터에서 발을 구르며 놀 수 있는 시설이다. 팀을 나눠 두더지 잡기를 시작하자 “깹”하는 즐거운 비명이 들렸다. 뛰어 놀며 자연스럽게 민첩성과 하체 근육을 키우는 체험이다.

놀이를 통해 몸에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선별하는 눈도 훈련했다. 동작 인식 센서가 달린 화면을 통해 채소를 으깨고, 스크린 속 다양한 농작물을 알아보며 형겅 주머니를 던졌다.



건강 식재료를 찾는 '건강마트' 체험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디딤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건강 마트’에선 각종 식품이 진열된 매대에서 음식 모형을 골라 바코드에 찍어보며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확인했다. 평소 신기해했던 바코드 찍기 체험을 위해 긴 줄이 늘어섰다.

건강 마트에서 한참을 머무른 김도훈 군은 “원래 호박을 싫어하는데 여기 찍어보니 ‘건강한 음식’이라고 나와서 앞으로는 잘 먹으려 한다”며 편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의식이 확산한 순간이었다.



올바른 양치질에 대해 배우는 ‘이 닦기’ 체험

음주 고글을 착용해 균형을 잡아보는 ‘음주 예방 교육’

‘치카치카’ 함께 배워 볼까요?

아이들은 올바른 손 씻기와 양치질에 대해서도 집중해 배웠다. 씻기 전후 손의 오염 차이를 확인하며 꼼꼼한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했다. 조윤슬 양은 이 닦기 영상을 유독 열심히 봤다. 구강 모형에 직접 칫솔질을 해보며 양치 순서와 방법을 익혔다. 조 양은 “맨날 스스로 ‘치카치카’한다”며 “앞으로도 밥 먹고 양치질을 꼼꼼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술에 취한 것처럼 어지러운 느낌을 내는 ‘음주 고글’을 신기해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어질어질한 기분으로 선을 따라 똑바로 걷는 체험을 통해 음주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임유진(25)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함께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손 씻는 방법과 양치질을 알려주겠다고 한다”며 “음주의 위험성을 간접 체험한 만큼, 귀가하면 부모님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웃어보였다.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지난 해 7월 설비를 교체하고 클라이밍 체험을 신규 도입한 이후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등에 입소문이 났다. 생활 습관을 형성해 가는 초등학교 입학 이전 5~7세 아이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특히 호응이 높다. 그 결과 재개관 이후 5개월 동안 1763명의 어린이가 체험



관을 찾았다. 체험관에서는 몸으로 놀면서 배우는 시설 외에도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구강 관리, 금연 교육 등 건강 습관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스토리텔링 수업을 운영한다.

춘천시 건강관리과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어린이들을 위해 동화 스토리텔링, 구강 보건 교육 등 맞춤형 콘텐츠를 운영하며, 건강과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을 통해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많이 찾아달라”고 말했다.®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 건강체험관

주소: 우두하리길 21, 우두동 강원도재활병원 맞은편

대상: (단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개인) 13세 이하

이용방법: 네이버를 통한 사전 예약 필수

이용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1부 오전 10시(단체)

2부 오후 2시(단체 또는 개인)

3부 오후 3시 30분(개인)

문의: 245-5433, 5434



소리와 빛에 반응하는
‘소리빛 놀이터’





산나물, 너는 나의 봄이다

세상의 모든 초록 빛을 먹는 시간, 산나물의 계절 3월이다. 기후 온난화로 재배 적지가 북상하면서 고산지대에서 볼 수 있었던 품질 좋은 산나물이 춘천의 기후환경과 딱 맞아 떨어졌다. 산나물은 일교차가 클수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향을 진하게 내뿜고, 조직이 치밀해져 식감이 아삭해진다. 따뜻한 남부지방 보다 춘천의 산나물이 향과 풍미가 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봄, 두툽한 낙엽을 뚫고 움트는 산나물의 힘을 느껴보자.

글 한수지 디자인·그림 슷카이



곰취

잎이 곰 발바닥을 닮았다고 하여 '곰취'라 불린다. 씹싸름한 향이 입맛을 깨운다. 잎자루가 길고, 앞은 대개 어른 손바닥만큼 넓다.



취나물

산과 들에서 자라는 '취' 종류 나물의 총칭으로,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다. 살짝 데쳐 무치면 풀향이 고르게 퍼진다.

두릅

줄기 끝에서 하늘을 향해 자라는 두릅나무 새순은 해마다 자연으로부터 받는 봄 선물이다. 산에서 자란 것은 향과 씹싸름한 맛이 더 또렷하다. 새순만 채취해야 나무가 약해지지 않는다.



오가피순

오가피나무에서 막 돋아난 어린 순이다. 향이 진하고 식감이 단단하다. 데쳐서 초고추장에 무치거나 튀김, 전으로 즐기면 봄기운이 살아난다.





눈개승마

지천에 널린 고급 산나물. 어린 잎은 불그스름한 색을 띠고 잎맥이 선명하다.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며 '소고기 나물'이라는 별명이 있다. 데친 새싹을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특히 맛이 좋다.



산마늘

산+마늘, 야생 마늘이라는 뜻에서 온 이름으로 '명이'라고도 부른다. 마늘 향이 은은하게 나며 줄기 하나에 잎이 두 장씩 달린다. 쌈이나 장아찌, 무침으로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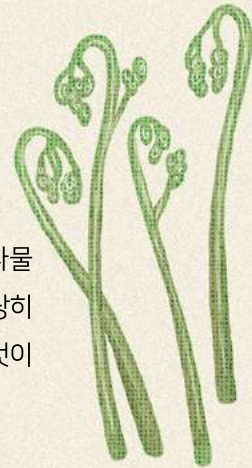


머위

질푸른 잎이 먹물처럼 보여 머구, 머위라 부른다. 봄나물 가운데 가장 먼저 수확한다. 새순에서 올라오는 상쾌한 향과 은근한 쓴맛은 재배 채소에서는 맛보기 어렵다. 어린 잎은 쌈으로, 줄기는 볶음으로 즐긴다.

고사리

우리 밥상에서 가장 익숙한 산나물 가운데 하나다. 솜털이 많고 적당히 굵으며, 길이 20~30cm 안팎인 것이 좋은 고사리다.



잔대순

산에서 자라는 잔대의 어린 순이다. 쌉싸름한 맛 뒤에 은은한 단맛이 돈다. 데쳐 무치면 향이 부드러워진다.



엄나무순

가시가 돋친 엄나무에서 돌아나는 어린 순으로, 살짝 아린 맛과 고소한 향이 난다. 데쳐 무치거나 된장국에 넣으면 향이 우러난다.

춘천의

봄맛도 감 :

제철맞은

봄

작물이

기지를

견다

춘천에서는 산속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 키우는 '임간재배'가 많다. 모양은 다소 투박하지만,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받고 자라 약성이 뛰어나다.

“심산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의 품에서 그대로 퍼질 대로 퍼지고 자랄 대로 자란 싱싱하고 향기로운 이 산나물 같은 맛이 사람에게도 있는 법이건만, 좀체 순수한 산나물 같은 사람을 만나기란 요새 세상엔 힘 드는 노릇 같다. 산나물 같은 사람은 어디 있을까? 모두가 억세고, 꾸부러지고, 벌레가 먹고, 어떤 자는 가시까지 돌쳐 있다. 어디 산나물 같은 사람은 없을까?”

-노천명의 <산나물> 중에서

산	나	물	을	
지	키	는		사 람



보라시골&서미순나물연구소 소장

서미순



“봄이에요. 오늘 날씨 좀 봐요.
산에 반짝반짝 숨털이 내려앉은 것
같잖아요. 산나물의 계절이 왔네요.”

2월 12일 춘천 서면 당림리 산자락. ‘보라시골’ 정원에는 아직 겨울 기운이 남아 있었다. 땅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낙엽 사이로 작은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서미순(65) 소장이 허리를 굽혀 막 올라온 싹을 살폈다.

보라시골의 앞산과 뒷마당은 그에게 작은 식자재 창고이자 부엌이다. “아직 땅이 얼어 새순이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지나면 냉이랑 달래 뿐 아니라 두릅도 지천이에요.” 그는 얼어붙은 흙을 손으로 쓸어보며 봄의 안부를 먼저 전했다. 눈앞에 펼쳐진 산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도시에서는 구하기도 어렵고 비싼 산나물 들이, 이 산속에는 흔하게 널려 있어요.”

서 소장은 1997년 춘천에 정착했다. 봄이면 곰취가 올라오고 두릅이 가지 끝을 밀어 올리고, 눈개승마가 숨털을 털며 고개를 드는 곳이었다. 지천에 널린 산나물이 좋아 나물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나물연구소’를 열었다. 춘천산 식재료와 4,958㎡ (1500평) 규모의 정원에서 채취한 나물을 자연주의 방식으로 조리해 건강하게 먹는 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나물의 ‘격’을 높이고 싶었다고 말한다. “밥상에서 나물이 주재료가 되고, 육류는 곁들이는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먹을 게 많지만, 믿고 먹을 수 있는 건 오히려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산을 다시 보게 됐다. 자연의 시간을 따라 자라는 음식, 그 답이 산나물에 있다고 믿는다.



“산나물은 자연에서 그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향이 다르고, 맛이 단단해요.”

혹독한 겨울을 견딘 시간이 앞과 줄기에 배어 있다.
그래서 산나물은 그 자체로 봄의 맛이다.

서 소장은 특히 춘천 산나물의 맛을 강조한다. “춘천은 밤낮 기온 차가 크잖아요. 그만큼 잎이 단단하고 향이 깊어요.” 같은 나물이라도 자라는 환경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춘천 산자락에서 자란 곰취는 씹싸름함이 또렷하고, 두릅은 순이 단단해 향이 오래 남는다. 눈개승마는 아삭한 식감이 살아 있다. 산나물은 산의 기운을 그대로 품기 때문에, 지역을 닮는다.

그는 산나물을 ‘제철을 아는 식재료’라고 부른다. “억지로 키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올라와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죠.” 봄이 아니면 만날 수 없고, 그 시기를 지나면 다시 산으로 돌아간다. 산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짧은 계절을 놓치지 않는 일이다. 춘천의 봄은 그렇게 산에서 시작한다.



보라시골
Bora Sigol

<보라시골&서미순나물연구소>

· 춘천시 서면 샛말길 293

· 0507-1309-6598

· www.borasigol.com



팬 하나로 건강한 한 끼 식사

레시피 by 서미순 소장님



산나물 들기름 구이



계절잎채소
(눈개승마, 취나물,
고사리 등)



계절열매채소
(애호박, 가지,
토마토 등)



계절뿌리채소
(양파, 당근,
감자 등)



들기름



물



차돌박이나
제육용 고기,
두부, 대파,
버섯, 새우젓

- 1 넉넉한 팬을 예열 후 약불로 줄인다.
- 2 물 1/2컵과 들기름 2큰술을 넣고 잎채소부터 익혀서 먹는다.
- 3 열매·뿌리채소를 얇은 두께로 썰어 익히고, 고기도 같이 굽는다.
- 4 마지막에는 두부, 새우젓, 나머지 채소를 넣고 찌개로 끓여 먹는다.
밥을 볶아 먹어도 맛있다.

Tip

팬 하나로 즐거운 식탁을 차려보세요. 제철 먹거리를 푸짐하게 준비해 야외 파티 분위기를 집 안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양념장이 따로 없어도 충분히 맛있지만 취향껏 맞춰 드세요. 무엇보다 설거지가 많지 않아서 편하답니다.

※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나만의 레시피를 공유해주세요. 4월호 주제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도입...요양시설 어르신 인권 보호

춘천시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강원도 내 최초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시는 1월 29일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22명의 노인복지명예지도원들은 공개모집 및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종사자 인식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도내 최초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춘천시 전체 인구의 22%(6만 4,332명)가 노인 인구로, 이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도 1,752명에 이르는 것으



로 파악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요양시설 이용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사회정책과 ☎250-4775

춘천 바이오를 기억하다... 배계섭 전 시장 유품 기증



춘천 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마련한 고(故) 배계섭 전 춘천 시장의 발자취를 다시 조명하고 춘천 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1월 23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배계섭관에서 열린 유품 기증식은 배계섭 전 시장의 유가족을 비롯해 민선 1기 당시 바이오산업 육성에 참여했던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유가족과 배계섭 전 시장과 함께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들은 배 전 시장이 살아생전 수상한 홍조근정, 녹조근정, 새마을 노력장 등 대통령 훈장 3개와 국무총리 표창, 타자기를 배

계섭관에 기증했다. 이때 자 배계섭 전 시장 배우자는 "춘천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던 남편의 뜻과 기록들이 이곳에 남아 시민들과 함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 전 시장은 민선 1기 춘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을 선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반 조성에 힘쓴 인물이다. 배 전 시장의 선택과 결단은 오늘날 춘천이 바이오산업 도시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됐다. 이와 관련, 춘천시는 지난 2023년 1월 춘천바이오타운 1동 로비 전시실을 배계섭관으로 조성해 업적을 기리고 있다. 기념관에는 배계섭 전 시장의 흉상과 춘천바이오산업 태동에 기여한 고(故) 조규현 교수의 청동부조, 지역 대표 기업들의 주요 기술 및 제품을 전시하는 등 춘천바이오산업 역사 현황판도 마련됐다.

첨단산업과 ☎250-4175

춘천시,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 추진...2029년 개관 목표

춘천시가 중앙고속도로 춘천IC 인근 동남권역 복지 거점 역할을 할 복합복지센터 건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사업의 필요성, 규모, 기능, 입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계 이전의 기획안'을 만드는 공공건축 용역에 착수했다.

동남권 복합복지센터는 동내면 학곡리 일대 택지개발사업지인 학곡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조성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관, 주민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서 전 세대 맞춤형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연면적 4,000 여㎡ 규모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건립되며 2029년 하

반기 준공이 목표다. 총사업비는 387억 원으로 이중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287억 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동내면과 동산면 등 동남권역은 신규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복지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시는 노인복지 거점 구축과 통합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유동 인구를 늘리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4개월간 용역을 거쳐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설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령사회정책과 ☎250-4187



'춘천시, 공공 야간 심야 약국 1곳→2곳 확대

춘천시가 기존 1곳으로 운영해 오던 공공 야간·심야 약국(이하 심야 약국)을 2월부터 2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심야 약국은 2023년부터 '퇴계동 강남약국'을 지정해 시범 운영했다. 이후 수요 증가와 지역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동내면 365대형약국'을 추가로 지정했다. 두 약국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심야 약국은 늦은 시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약국으로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판매와 복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시는 심야약국 확대 운영을 위해 지난해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해당 시간대 운영에 필요한 약사 인건비를 시간당 4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1일 최대 3시간, 연중 36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심야 근무 부



담을 고려해 약국별로 월 1~2회 자율 휴무는 허용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심야 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이 줄어들고 약사를 통한 복약 상담 제공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비응급·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의료비의 적정 사용과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과 ☎250-4556

봄내 한 컷

시민의 시선으로 담아낸 다채로운 춘천의 모습



1. 이동민 빙어 낚시
2. 허남국 소양강 일출
3. 이유진 고요한 눈 내리는 강변
4. 현수경 겨울에도 지지 않는 꽃
5. 연제열 구곡폭포의 아름다운 빙폭

<봄내 한 컷> 참여방법은 후면 P.63를 확인해주세요!

1	3	
2	4	5

나만의 순간을 찰칵

봄내 한 컷





춘천이 '배구 불모지'라고요?

스포츠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 화려한 프로구단의 연고지? 웅장한 전용 경기장의 유무? 그것만이 기준이라면 춘천은 '배구 불모지'라 불릴지도 모른다. 프로배구팀이 없고,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운동부의 명맥도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선을 '생활체육'으로 돌리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해가 저무는 평일 저녁, 만천초와 성림초 체육관은 어김없이 환하게 불을 밝힌다. 배구화 바닥이 코트와 마찰하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 동료의 이름을 부르는 힘찬 기합, 그리고 공을 살려내기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들. 춘천은 그 어느 도시보다 뜨거운 '배구 심장'을 가진 곳이다. 불모지라는 편견을 보란 듯이 뒤집고 있는 춘천 배구의 생생한 현장을 들여다봤다.



춘천의 배구인들은 매년 춘천시장배 생활체육 배구대회에서 실력을 겨룬다.

편견을 깨부수는 강력한 '시민 스파이크'

글 시민기자 박민철

숫자로 증명하는 '반전의 열기', 춘천은 살아있다

춘천의 배구 생태계는 행정이나 기업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자생적인 열정으로 구축됐다. 춘천시배구협회에 등록된 클럽 수만 해도 13개에 달한다. 인구 대비, 전문적인 배구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을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의 밀도다.

현재 정회원 클럽 8개 팀(세이버스, 춘천비바, 썬더히어로, 레이커스, 썬더나인, 블랙이글스, MC위너, 춘천남자실버부)과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준회원 클럽 5개 팀(강원대·춘천교대·한림대)이 리그를 소화하고 있다. 동호인 수는 약 200명. 코로나19 이후 많은 생활체육 종목이 위축됐음에도, 춘천 배구는 3년 사이 신규 클럽이 2개나 창단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쉽게 배우는 경기 규칙

배구의 규칙은 간단하다. 3번의 터치 안에 네트 반대쪽 상대 진영으로 공을 넘겨야 한다. 그 안에 공을 넘기지 못하면 실점한다. 상대가 서브하면 리시브로 공을 받아, 토스로 공을 올리고 공격한다. 생활체육에서 즐기는 '9인제 배구'는 한 팀의 선수 9명이 고정 위치에서 경기한다. 프로배구에서 채택하는 6인제보다 긴 랠리와 팀 협업을 중시한다. 네트 높이가 낮아 초보자도 즐기기 적합한 운동이다.

이들이 즐기는 배구는 프로배구(6인제)와 달리 '9인제'로 진행된다. 많은 인원이 동시에 경기에 참여할 수 있어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의 취지에 제격이다. 수비 간격이 촘촘해 1인당 커버해야 할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호인들도 체력 부담을 덜 느끼며 경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트 안에서는 국경과 세대도 사라진다. 20대 대학생의 패기와 60대 실버부의 노련미가 네트를 사이에 두고 맞붙는다.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이웃들도 공 하나로 언어 장벽을 넘어 '원팀'이 된다. 춘천에서 배구가 단순한 운동 모임을 넘어, 사회 통합의 장(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명문 DNA'의 계승, 동호회가 '실력파'가 된 비결

춘천 배구 동호인들의 실력은 정평이 나 있다. 조직적인 전술과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팀들이 많다. 그 비결은 춘천 땅에 흐르는 '배구 명문의 역사'에 있다. 과거 춘천은 유봉여고 배구부와 1980~1990년대 대학 배구를 호령한 강원대 배구부가 있었던 '배구 도시'였다. 엘리트팀 규모는 축소됐지만, 그때의 주역들은 춘천을 떠나지 않았다. 선배 배구인들이 생활체육인들의 멘토를 자처했다.

이들이 전수하는 기술과 경기 운영 노하우는 시민의 열정과 만나 상승효과를 냈다. 춘천시 대표팀은 2024년 제32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남자부 단체전 준우승을 거뒀다. 지난해는 기세가 더 확장돼, '블랙이글스' 클럽이 강원 종별 배구선수권 대회에서 여성부 3위에 올랐다.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



춘천시배구협회 소속 클럽 회원들은 올해 1월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올스타전에서 봉사활동에 나섰다.

대회에서도 춘천시 대표팀 여성부가 3위에 입상했다. '시민 선수'들이 춘천 배구의 자존심을 단단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코트 밖에서 빛난 '리시브 정신', 올스타전을 지키다

배구는 '희생'의 스포츠다. 자신을 위해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동료가 공격할 수 있도록 공을 받아내고(리시브), 올려주는(토스) 이타적인 플레이가 필수다. 춘천 배구인들은 이러한 스포츠 정신을 지역 사회 봉사로 확장했다.

1월 25일,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올스타전'의 성공적인 개최 뒤에는 춘천 배구 동호인들의 숨은 땀방울이 있었다. 각 클럽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12명의 봉사단은 축제의 조연을 자처했다. 전경숙 춘천시배구협회 전무이사가 장비 매니저로, 이기호 전 전무이사가 코트 매니저로 나서 현장 실무를 도맡았다. 이들은 네트 설치부터 경기장 바닥 청소, 장비 점검 등 가장 고된 곳에서 묵묵히 움직였다. 배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뭉친 이들의 헌신 덕분에, 춘천을 찾은 전국의 배구 팬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 춘천이 진정한 '배구 도시'임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2026년, 시민을 위한 코트가 넓어진다

춘천 배구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한다. 춘천시배구협회의 올해 목표는 동호인들이 날씨와 대관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공간이 확보되면 대규모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와 스포츠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무대도 넓어졌다. 올해 처음으로 '2026 춘천시 종목별 리그전 배구대회'가 신설됐다.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연중 4회 이상 리그 형태로 진행된다. 매년 10월 열리는 '춘천시장배 배구대회'까지 더해지면, 시민들은 1년 내내 배구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배구는 9명이 하나가 되어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끈기와 화합의 스포츠입니다. 춘천 배구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경숙 전무이사의 말처럼, 프로팀의 유무가 도시의 스포츠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도 퇴근 후 체육관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한, 춘천은 그 어느 곳보다 비옥한 '배구의 땅'이다.

우리들 이야기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

독자 김 주 희

2026년 새해를 맞아 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강릉 안인해변에 다녀왔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고 부서져도 바다는 계속 흐르고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하듯 우리 가족도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한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독자 문 행 순

대학입시를 마치고 둘째 아들과 함께 강원대를 찾았습니다. 긴 시간 쌓였던 긴장과 부담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미래를 상상했고, 저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을 누비며 손흥민 벽화 앞에 서자,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세계를 누비는 손흥민의 모습이 아들의 꿈과 겹쳐 보였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어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먹은 닭갈비는 유난히 맛있었고, 하루의 기억을 따뜻하게 남겨줬습니다.

그날의 걸음은 여행이자 쉬이었습니다.

독자 이영일

반려견 '하오'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유치원에 다니는 손녀가 지어주었습니다. 하오는 나이가 어려, 낯선 환경에서 천천히 적응하도록 도와 주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귀여운지 온 가족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깐요. 벌써 '까불이'가 됐습니다.

하오는 저와 함께 올바른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을 잘 지킬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생명과 동물복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입양에 도움 주신 춘천시동물보호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독자 김시우

남편과 철원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오는 길에 들렀던 오월리. 반가운 만남 후 들뜬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탓인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 가족의 행복에 저희도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시간이었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여유를 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갑작스러운 행복의 시간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자주 찾아와주길 바랍니다. **우리 집 가장, 여보^^ 소방관 일하느라 힘들지? 함께해 줘서 고맙고 사랑해요.**



독자 오승희

봄날의 햇살같은 우리 아들 희서, 시후야. 엄마가 곧 다가오는 봄이 이렇게 설레는 이유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너희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고, 작은 꽃 하나에도 같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야. 너희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평범한 날도 특별하게 만들어줘. 다가오는 봄에도 우리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작은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자. 사랑해~

너희가 있어서 엄마의 모든 계절은 늘 봄이야.



최돈선의 발견

시인 최돈선이 바라본 마을 그리고 사람 이야기

그 집은 녹두란 말이 없어도 녹두꽃 내음이 난다

글 최돈선 사진 윤현



- 그 집으로 가는 길

그제 눈이 내린 후, 나는 그 집으로 간다.

기와지붕에도 주위 마당에도 아직 잔설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뒤쪽으로 나지막한 동산이 있는데, 키 큰 앞갈나무 사이 사이 파란 하늘이 들어차 있다. 나란히 도열한 앞갈나무는 성을 지키는 병사들만 같다. 집 앞으론 소나무 숲이 살짝 그 집을 가려서 어떤 비밀이 간직된 집인 듯 여겨진다.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 상황은 반전된다. 그 집 한쪽에 걸린 간판이 그 정체를 드러내니까.

삼계탕.

그러나 그 집에 닿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집으로 가는 오솔길은 숨겨진 터널을 지나야 한다.

그 길은 동네 사람들만이 통행하는 길인 모양이다. 정말 잘도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초행인 사람이 내비게이션 없이 가기엔 아주 곤란한 길이다.

춘천 시내에서 팔미리 교차로에 닿으면 정면으로 삼계탕집이 보인다. 왼쪽 순환대로 쪽으로 90도 회전한 다음 1분여 쯤 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칫하면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단 1분이다. 명심하시라. 오른쪽으로 급히 360도 비잉 회전하라는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곧 뜨게 된다.

수문장인 듯한 커다란 느티나무 저쪽 고요한 집.

당신 앞에 불쑥 해자塚 같은 도랑이 눈에 띄는 것이다. 그 도



김경달 초상(후손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재현한 그림)

랑을 건너야 비로소 그 집 마당에 닿게 된다.

안으로 들어서니 실내는 온통 훈민정음체의 석보상절로 도배되어 있다. 손님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거실을 포함해 세 군데뿐이다. 거실과 면한 주방에서 삼계탕이 만들어진다. 전형적인 가정집이다. 주인 김영희 씨는 혼자서 음식과 상차림을 한다. 메뉴는 단출하다. 삼계탕과 백숙과 닭볶음탕이 전부다. 하지만 백숙과 닭볶음탕은 사전 예약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직 삼계탕뿐이다. 그것도 녹두가 들어간 녹두삼계탕.

두 개의 방엔 가족인 듯한 손님들이 조용히 식사 중이다. 나는 삼계탕을 시켜놓고 거실 식탁에 앉아 주위를 둘러본다. 이

집 간판에도 메뉴에도 녹두란 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집의 주메뉴는 녹두삼계탕이다.

달리 무슨 이유가 있을 리 없다. 이 집에선 ‘으레 녹두가 들어가야 삼계탕 아닌가?’ 하는 것만 같다.

녹두는 녹색의 콩이다. 몸의 독성을 해독하고 불편한 속을 편케 해주는 효능이 있다. 그런 정도는 한국인이란 다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시루 같은 용기에 녹두를 담아 물을 주어보라. 그러면 콩나물 대가리처럼 숙주 싹이 쪽쪽 머리를 내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변비에 아주 좋은 나물이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의미의 녹두를 떠올린다.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는 이 연상작용이 거실 벽으로 눈길을 주자 섬광처럼 눈에 들어오는 세 글자.

- 김경달

1895년 명성왕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되었다. 10월 8일 새벽 4시 거사명은 ‘여우사냥’이었다. 국모가 살해된 이 사건으로 왜적에 대한 분노가 전국적으로 들끓었다. 그해 11월 15일 윤홍집 친일내각은 성인 남성 모두에게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을 내렸다. 국모 시해와 유교적 전통을 말살하려는 이 단발령으로 민심이 뭉뚱해졌다.

춘천과 제천에서 첫 깃발을 든 의병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그 중심에 남면 가정리 출신 유인석이 있었다. 가정리 출신의 김경달도 춘천의 의병장 이소응이 지휘하는 의진義鎭에 참여하여 포수로 활동했다. 포수는 총을 잘 쏘고 게릴라전에 능한 정예병을 말하는데, 당시 왜군이나 경군(친일정

부군)이 제일 두려워했다고 한다.

김경달은 경기도 양평 잠강 전투에서 경군에 의해 사로잡혔다. 그는 경군의 회유를 뿌리치고 의연한 자세로 맞서 충살당하였다. 그의 나이 47세였고, 1896년 음2월 8일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30년 전 일이다.

- 녹두삼계탕

나는 삼계탕을 가져온 주인에게 물었다.

“김경달 이분이 주인과 어떤 관계예요?”

“제 할아버지세요.”

“아! 의병의 후손이군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셨네요?”

“네. 지금 호국원에 안장되어 계세요.”

담담하나, 그 표정에서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녹두삼계탕. 전봉준의 녹두꽃 동요가 퍼뜩 떠올랐다.



고모네삼계탕 주인 김영희 씨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거실에 걸려있는 할아버지 '김경달'의 훈장증(건국훈장 애국장)과 공로장, 아버지 '김은복'이 받은 참전용사증서

나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뜨거운 녹두삼계탕에 숟갈을 담가 한술 떴다. 입김을 호호 불어 입에 넣었다.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입안을 감돌았다. 육질이 쫄깃했다. 열심히 먹었다. 닭 속엔 인삼 하나가 유일했다. 대추도 밤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녹두만이 찹쌀과 어울려 진득이 내 혀에 감겼다. 그것으로 만족이었다. 요란하지 않은 이 녹두가 주는 삼계탕 맛은 아는 사람만 알아서 이곳에 온다고 했다. 그럴 거 같았다. 반찬도 단순했다. 총각무 한 보시기, 양파, 간장에 절인 고추, 갓김치가 전부였건만 맛있고 흡족했다. 고향의 푸근한 정이 느껴졌다. 모두 주인이 텃밭에서 기른 것들이었다. 게다가 나는 덤으로 김경달의 의로운 선열의 정신과 녹두꽃 내음도 맡았다. 녹두장군 전봉준과 춘천의병 김경달이 달처럼 떠올랐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전봉준보다 여섯 살 위인 김경달은 포수로 열심히 싸우다 의롭게 죽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고 한다.

“나는 나라의 대의를 위해 싸웠다. 어서 죽여다오.”

김경달이 죽은 지 일 년 뒤에 전봉준이 사형을 당한다. 어떤 사람이 전봉준에게, 일본공사에게 목숨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해보라 권했다고 한다.



가정리 의병 김경달 묘와 비석

그러자 전봉준은

“나는 죽음을 기다린 지 오래다. 죽음을 구걸하다니!”

두 분의 기개가 아직도 우리의 심장을 찌릿하게 관통하고 있는 듯싶다.

- 손녀의 시

그런데 문간에 걸린 액자 하나가 내 눈에 발견되었다. 시화였다. 제목은 ‘독립운동가 김경달’인데 긴 시였다. 이름이 김영순으로 되어 있었다.

주인이 곁에서 말했다.

“제 언니예요.”

“시인인가요?”

“네. 멋진 분이죠.”

“지금 여기 사세요?”

“아뇨? 서울 사세요.”

할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할아버지 장군에 대한 존경과 우리름이 깃든 시였다.

나중에 나는 김영순 시인(김주은으로 필명을 바꿨다고 했다)과 통화했다. 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마음속에 꼭꼭 담아둔 시인의 목소리는 칠십이 넘는 나이에도 푹푹하고 싱그러웠다.

이 집은 녹두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녹두꽃 향이 난다. 녹두꽃이 떨어져도 녹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녹색으로 푹푹이 살아서 숨 쉰다.

이것이 바로 이 집 <고모네삼계탕>이 간직한 거룩한 신비로움인지도 모른다. *



고모네 삼계탕 주메뉴 '녹두삼계탕'과 밑반찬들

효자동 병아리

글 서현숙 그림 공혜진



열한 살의 봄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춘천초등학교 후문으로 나오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다. “삐악삐악삐악” 담벼락 아래에 어떤 아주머니가 열어 놓은 종이박스 안에 노랑고 뽀송한 솜뭉치 같은 것들이 가득했다. 병아리였다. 조그맣고 귀여운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쫓그리고 앉아 한참 보다가 가방에 꽂쳐놓은 비상금을 꺼내 두 마리를 사버리고 말았다.

아주머니는 종이 봉지에 병아리 두 마리를 넣고 내가 들고 있던 실내화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다. 실내화 주머니를 품에 안고 집(효자동)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탔다. 버스가 움직이자 병아리들이 쉴 새 없이 삐악거렸다. “삐악삐악삐악~” 버스 안의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며 “이게 무슨 소리야?” 했다. “제 병아리들이예요!” 자랑하고 싶었지만,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는 행복하고도 민망하여 얼굴에서 열만 훅훅 났다.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집을 향해 뛸다 뛰어가고 싶었지만 내 병아리들이 어지러울까봐 실내화 주머니를 품에 살포시 안고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조심조심 걸었다. ‘엄마가 좋아하겠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엄마, 나 병아리 사왔어!” 크게 말했는데, 엄마의 표정은 내 예상과 달랐다.



“아휴, 이딴 걸 왜 사왔어?”

“예쁘잖아.”

“몸 약한 병아리들만 골라 와서 애들한테 파는 거야. 오래 못 살고 금세 죽을 텐데.”

병아리들은 집에 오자마자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마치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 같아서 울상이 되었다.

병아리들은 엄마가 마련해 준 집(라면 박스 같은 종이 상자)에서 효자동 생활을 시작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병아리들이어서 그런지 애뜻하고 가엾게 여겨졌다. 엄마의 선고와는 달리 병아리들은 금세 죽지는 않았다. 종이 상자 안에서 모이와 물을 열심히 쪼아 먹고 최선을 다해 삐악거렸다. 식구들이 “아휴, 시끄러워.” 할 정도였다.

어느 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엄마! 병아리들이 이상해! 몸에 이상한 게 났어!” 엄마가 와서 보더니 “닭이 되려나보네.”라고 말했다. 나는 한 번 더 소스라쳤다. 열한 살 어린이는 병아리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다. 병아리는 마냥 병아리일 줄 알았다.

병아리는 하루가 다르게 외양이 망측해져갔다. 공지에 하얀 닭털이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온몸에 병아리 털과 닭털이 혼재하는 과도기적 존재가 되어갔다. 병아리는 닭이 되었다.

병아리 아니 닭들은 더 이상 종이 박스 안에 살 수 없는 거물이 되어 거실이 아닌 마당에서 살게 되었다. 더 이상 삐악거리지 않았고, 꾸꾸꾸~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마당을 마구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똥을 싸다.



여름 방학에 외삼촌의 딸 나영이가 우리집에 놀러왔다가 마당 장독대 계단으로 뛰어올라가더니, 장독대에서 담장 밖으로 펄쩍 뛰어내렸다. 그때, 멀쩡한 대문을 놔두고 담장을 이용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나영이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존재가 있었다. 닭들이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닭 두 마리가 사라졌다. 대문은 잠겨있었는데 말이다.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닭을 찾다가 강둑(지금의 석사천변)에 이르니 꾸꾸 소리가 들렸다. 닭들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푸성귀들을 쪼아 먹으면서 산책하고 있었다. 나는 양말이 소녀처럼 닭을 몰아 집으로 귀환하였다.

이후 닭 실종 사건은 매일 아침 일어났다. 드디어 목격자가 나타났다. 아빠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보니 닭들이 장독대로 올라가서 담장 밖으로 뛰어내리더라.” 닭들은 나영이의 행동을 보고 배운 거다. ‘닭대가리’라는 말은 틀렸다. 닭은 뛰어난 학습 능력을 지녔다.

서리가 내리도록, 하루도 빠짐없는 나의 거룩한 일과가 생겼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리나케 강변으로 나가 닭들을 몰아 집으로 돌아오는 일과였다. 닭 두 마리는 첫 눈이 내리도록 우리와 함께 살았다. ‘우리닭’이 되었다.

한번은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아휴, 닭들을 언제까지 키워야 하나.” 사실 닭 모이를 주고 마당에 흩어진 닭똥을 치우는 건 늘 엄마의 몫이었고, 닭을 반려동물처럼 마냥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마당에 닭들이 없었다. 강변에도 없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숙아, 닭을 마냥 키울 수는 없잖아. 아빠가 오늘 동네 닭집에 닭들을 그냥 주고 오려고 갔는데, 닭 종자 자체가 몸집이 작아서 살도 없는데다가 닭치고는 엄청 늙어서 맛없을 거라고 하면서 안 받더라. 그래서 아빠가 그 집에서 파는 닭을 한 마리 사고, 우리 닭들을 맡기고 왔다.”

부엌 냄비 안에서 끓고 있는 닭이 ‘우리 닭’은 아니었지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엄마와 아빠, 언니와 오빠는 안방 밥상에 모여 앉아 닭고기를 먹었고, 나는 내 방에서 울었다.

병아리는 그저 병아리로 내 곁에 마냥 있을 줄 알았다. 병아리의 최후는 동네 닭집이었지만 내 마음은 기억하고 있다. 실내화 주머니에 담겨 빼악거리던 귀엽고 약한 생명체에 대해 품었던 애뜻함을, 새벽마다 석사천변으로 달려가 남의 밭에서 아침 식사와 산책을 즐기던 닭을 몰아 돌아오는 일과에 느꼈던 대단한 사명감을, 그해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 춘천 효자동에 아로새겨진 마음을.



시각효과 전문기업 '모터헤드' 춘천사업부 최서원 씨 만화에 빠진 소녀, VFX 아티스트가 되다

글 시민기자 김건희



춘천에서 배워 춘천에서 일하는 VFX 전문가 최서원(29) 씨.

최서원(29) 씨는 춘천에서 배워 춘천에서 일하는 VFX 아티스트다. 강원애니고등학교 3기 졸업생으로, 미국 유학을 거쳐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중 춘천시 영상산업지원센터의 교육을 받고 지난해 11월 VFX를 전문으로 다루는 '모터헤드'에 입사했다.

여고생의 당찬 도전, 전문가로 거듭나다

최씨는 고교 2학년, 일반고에서 강원애니고로 편입했다.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는 당찬 도전을 택했다. 졸업 후 3년간 미국 유학 생활을 거쳤고, 귀국해 일러스트와 웹툰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했다.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이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도 늘 함께했다.

최씨는 춘천시 영상산업지원센터에서 2개월간 VFX(Visual Effects, 시각효과)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길을 찾았다. 현업 전문가에게 직접 기초부터 실무까지 배우며, 실력 향상의 디딤돌로 삼았다. 춘천시가 VFX 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최대 콘텐츠 클러

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젊은 인재에게 해답을 줬다.

삶의 흐름을 바꾼 선택, '모터헤드'

교육 이후 취업 연계를 통해 지금의 회사와 연을 맺었다. '모터헤드'는 영화와 드라마에 들어가는 특수 영상과 시각 효과를 제작하는 VFX 전문기업이다.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 드라마 '스위트홈', '폭삭 속았수다' 등 다양한 프로젝트의 CG(컴퓨터 그래픽)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모터헤드를 "사람과 가능성, 그리고 미래를 믿고 투자하는 기업, 무엇보다 도전을 응원하는 회사"라고 소개했다. 모터헤드는 그의 첫 직장이자 삶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선택이었다.

현장 업무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확연히 달랐다. 최씨는 "실무에서는 더 많은 정보와 더 높은 완성도를 요구받는다"며 "이 차이를 두려워하기보다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리랜서로 혼자 작업하던 환경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해야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실수도 있었지만,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하나씩 맡은 일을 해내는 것 자체를 그는 훈장으로 여겼다.

그의 목표는 다양한 작품에 참여해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연, 전시,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VFX 아티스트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춘천에서 배움과 일자리를 잇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한다.



최서원 씨가 일하는 VFX 전문기업 모터헤드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CG 작업에 참여했다.

박광희 근화동 자율방범대장

3년 만에 탄생한 '자원봉사 명장'

글 시민기자 박민철

어두운 밤, 모두가 귀가하는 시간에 오히려 집을 나서는 이들이 있다.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바로 자율방범대다.

33년간 동네를 지켜온 박광희(65) 근화동 자율방범대장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명장' 칭호를 받았다. 춘천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자원봉사 명장'은 누적 봉사 시간이 1만 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만 수여되는 최고 영예다. 이번 명장 선정은 2022년 이후 춘천에서 3년 만에 탄생한 귀한 결실이다.

근화동 토박이, 동네가 걱정돼 방범복을 입다

박광희 대장은 근화동에서 4대째 터를 잡고 사는 '근화동 토박이'다. 그가 처음 방범복을 입은 것은 1992년. 당시 근화동은 지금처럼 정비된 모습이 아니었고 치안 사정도 좋지 않았다. 박 대장은 "내 고향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됐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활동 초기는 쉽지 않았다. 차량도 없이 오로지 두 발로 골목을 누비며 순찰에 나섰다. 사건·사고가 잦았던 시절, 거친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다닌 세월이 어느덧 30년을 훌쩍 넘었다.

박 대장을 포함해 12명의 대원이 근화동 자율방범대로 활동 중이다. 이들의 일과는 매일 오후 8시에 시작돼 11시 30분까지 이어진다. 단순히 범죄 예방 순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근화동 전역은 물론, 인접 동과 연계해 춘천시 곳곳의 치안을 살핀다. 특히 최근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과 지역 환경 정화 활동에도 힘을 쏟



근화동을 지키는 경찰과 자율방범대. 박광희 대장은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박광희 근화동 자율방범대장은 누적 봉사 시간 1만 시간을 기록해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명장'으로 선정됐다.



고 있다. 골목이 깨끗해질수록 불안감이 줄고, 주민들의 시선이 오래 머무르기 때문이다. 자율방범대는 순찰을 다니며 동네가 점점 깨끗하고 안전해지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주인 의식이 만드는 안전

'1만 시간'이라는 기록 앞에서도 박 대장은 덤덤했다. 명장 선정 소식에 그는 "마음이 든든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뿐"이라고 담담히 소감을 전했다. 그를 움직인 건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라 이웃과 지역을 향한 애정이었다. 그의 말에서 '안전'은 누군가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지켜야 할 생활이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박 대장이 꿈는 동네 안전의 핵심은 '공동체 의식'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생활 속 질서를 함께 지키는 분위기가 자리 잡을 때 범죄의 틈도 줄어든다. 실제 방범대가 하는 역할은 순찰뿐 아니라 위험 요소를 발견해 알리고,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일까지 닿아 있다. 박광희 대장은 "항상 함께 고생해 주는 대원들에게 고맙다"며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봉사로 기쁨을 찾자'는 생각으로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근화동 자율방범대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보람된 일에 동참하고 싶다면, 가까운 모집 안내를 통해 문을 두드려보자. 1만 시간을 넘어, 오늘도 근화동의 밤길을 지키는 순찰은 이어지고 있다.

만천유치원 비버스카우트

"신나게! 사이좋게! 내 힘으로!" '환경 수호대'

글 시민기자 김두산



플로깅(plogging)을 통한 환경 교육



숲놀이와 야외 모험 활동

“비버스카우트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김가을, 하혜민 만천유치원 교사가 해맑게 웃으며 첫마디를 꺼냈다. 비버스카우트를 설명하려면 꼭 들어봐야 한다며 내민 곡은 놀랍게도 담당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노래였다.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반짝이는 햇살 아래, 내 힘으로 도전해요~” 가사에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환경을 아끼는 마음이 듬뿍 담긴 이 노래는 아이들이 지구를 지키는 ‘환경 수호대’로 활동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만천유치원(원장 이금자)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 교육 프로그램 ‘비버스카우트’를 운영하며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다. 비버스카우트는 스카우트(SCOUT) 청소년 운동에서 만 4~6세의 아동이 활동하는 단계다. 숲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비버(beaver)처럼 협동심을 기르고 자연과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만천유치원은 이런 본래 의미에 ‘생태 전환 교육’을 결합해, 아이들이 직접 동네를 돌보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

다채롭고 체계적인 비버스카우트 활동

만천유치원은 지난해 19번에 걸쳐, 62시간 동안 체계적인 비버스카우트 활동을 진행했다. 3월 발대식에서 아이들은 대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직접 만든 노래를 불렀다. 이후 매달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유치원 인근과 지역 사회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동을 연 4회 이상 실시해 봉사의 일상화를 실천했다.

9월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쓰담춘천’ 활동을 통해 유치원에서 배운 환경보호 정신을 가정과 지역 공동체로 확산하며 울림을 줬다. 각 계절에 할 수 있는 체험도 풍성했다. 봄에는 꽃씨 심기와 캠프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경험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신체 역량을 길렀다. 5월 검봉산 숲속 모험과 10월 텃밭 노작(勞作) 활동은 아이들에게 자연과의 정서적 교감을 선사했다. 11월에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직업체험관을 방문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경험했다. 12월 동물 탐사와 올해 1월의 마무리 파티를 끝으로, 배움과 놀이를 결합한 1년의 여정을 마무리 지었다.

작은 도전으로 어려움을 이겨내 보는 경험 제공

니체는 “인생을 최고의 결실과 기쁨으로 수확하는 비결은 위험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안락한 교실 안에 머물기보다 낯선 숲을 탐험하고, 땀 흘려 텃밭을 일구며, 쓰레기를 줍는 일은 하나의 작고 위험한 도전이었을지 모른다. 만천유치원은 이런 도전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뼘 더 성장하는 힘을 길러줬다. 김가을 교사는 “아이들이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며 느낀 성취감은 그 어떤 교과서보다 강력한 교육적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변화가 나타났다. 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는 “산책할 때면 아이가 먼저 쓰레기를 찾아 치우자고 권유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다”며 비버스카우트 활동이 자녀의 시야를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즐겁게 시작해 실천으로 마무리한 만천유치원 비버스카우트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환경 교육의 본보기가 됐다. 대장정을 마친 꼬마 대원들은 이제 더 큰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외친다. “신나게! 사이좋게! 내 힘으로!”

AI 동화책 봉사단 정희경 씨

할머니·할아버지가 만든 AI 동화책

글 시민기자 전영호

“우와~ 할머니도 AI 해요?”

책을 받아 든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묻는다. 그 질문에 정희경(66) 씨는 자신이 만든 동화책을 안겨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그럼 그림도 AI가 그렸어요?”, “그럼 금반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직접 보고 싶어요”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정 씨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 AI 동화책 봉사단은 어르신들이 챗GPT 같은 AI 프로그램을 배워 직접 동화책을 만들고, 어린이집을 찾아가 낭독과 책 전달 활동을 하는 봉사단이다. 60대 중반부터 80대 중반까지 복지관 회원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관은 어르신을 변화에 뒤처진 존재가 아니라, AI와 같은 새로운 지식을 주도적으로 배우고 나누는 주체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이 봉사단을 기획했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뒤 퇴임한 정희경 씨는 복지관에서 봉사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했다. 정 씨는 남산초등학교



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디지털 교육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퇴임 후에도 “노인도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지역에 기여할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봉사단은 그 마음을 실천할 계기가 됐다. 정 씨가 만든 책은 ‘할머니의 금반지’다. 어린 시절 모내기 날, 논에 빠져버린 할머니의 금반지가 벼베기 때 진흙 위에서 다시 반짝 모습을 드러내며 쌀과 함께 되찾게 되는 이야기다. 정 씨가 직접 겪었던 실제 일화로, 가족의 기억에만 있던 이 이야기는 AI를 통해 동화책으로 완성됐다.

챗GPT 가입부터 삽화 제작까지, 시행착오를 넘다

AI로 동화책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프로그램 가입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삽화 역시 단어 선택에 따라 표정·동작·배경이 달라져 원하는 장면을 얻기까지 입력 문장을 여러 번 고쳐 써야 했다.

정 씨는 “입력 단어 하나가 표정과 몸짓을 바꿔요. 딱 맞는 그림을 얻으려면 계속 고쳐 써야 했죠”라고 말했다. 그는 동화책을 더 잘 만들어보고 싶어 개인적으로 챗GPT 유료 버전을 구독하고, AI 활용 영상을 찾아보며 혼자 공부했다. 그 결과 그림책 14권이 출판돼 총 280권이 제작됐고, 단원들은 춘천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8곳을 찾아아이들에게 책을 전달했다.

새해에도 이어지는 봉사활동

정 씨는 올해도 봉사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함께 배우고 서로 도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아이들이 AI를 직접 써보는 시간도 함께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춘천남부노인복지관 ☎ 241-5600



(위)AI를 배우는 학습 과정. (아래)맨 뒷줄 가운데 정희경 씨.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가 2.3.(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1.(수)까지 제347회 임시회를 열었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 집행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진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올해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대한 계획과 방향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라며 “동료의원들께서는 지난 해 심사한 사업들이 주요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제11대 춘천시의회가 시민과 맺은 약속을 완성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결과는 4월호에 게재됩니다.



부의 안건 목록

안 건 명	제 출(발의)자	소관 상임위
춘천시 고문번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기획행정위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제도시위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기획행정위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기획행정위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문화복지위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각 상임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문화복지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신성열 의원	경제도시위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운기 의원	문화복지위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건 의원	경제도시위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배숙경 의원	경제도시위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기 의원	경제도시위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제철 의원	경제도시위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배숙경 의원	의회운영위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

5분 자유발언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원 윤 민 섭



꿈자람 물정원의 안전한 재개장과 국방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춘천은 풍부한 수자원을 가진 호반의 도시임에도 도심 내 공공 물놀이 시설이 부족해,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꿈자람물정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 개장 이후 4년간 17만 명이 이용하며 성과를 거뒀으나 토양오염 문제로 2020년 폐쇄돼 5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정화가 완료돼 재개장을 앞둔 만큼, 단순 복구가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공간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안전관리, 춘천만의 테마를 담은 차별화, 야간 운영 도입, 봄내체육관과 연계한 사계절 복합공간 조성을 제안하며, 국방부에는 장기간 운영 중단에 따른 시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원 정 경 옥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제언

4월 시행을 앞둔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치유관광을 국민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국가 차원의 융복합 산업으로 규정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실행의 중심은 지방정부이며, 춘천시는 풍부한 자연과 생활 속 휴식 자원을 '치유관광'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치유관광을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설정하고, 관광객보다 시민의 일상 회복을 우선에 두며, 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 행정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치유관광은 소비가 아닌 회복 중심의 도시 전략이며, 춘천이 머무르며 회복하는 도시로 나아갈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council.chunche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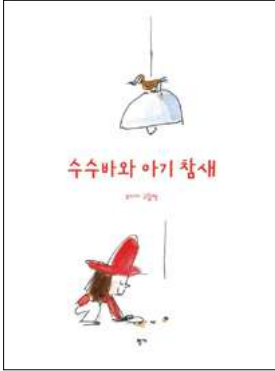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1.19.(월)부터 2.13.(금)까지 4주동안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인턴십에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선발된 6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조례분석과 주민조례청구 등 지방의회 체험을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는 1.26.(월) 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1.28.(수) 의회 소회의실에서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춘천시의회와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수바와 아기 참새

글 조미자

춘천 대표 그림책 전문 출판사 핑거에서 출간 중인 '나의 수수바' 시리즈의 여섯 번째 이야기다. 수수바네 기와지봉은 동네 참새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고, 여기저기 똥을 싸는 참새들은 수수바에게 그저 귀찮고 성가신 존재였다.

그러다 아기 참새 한 마리와 눈이 마주치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먹이를 챙기고, 잠자리를 마련하며, 마음을 기울이는 사이 '저 참새들'은 '우리'가 된다. 무관심했던 존재가 특별해지는 순간, 나의 세계도 확장된다. "이제 모든 참새가 너로 보이겠지?"라는 수수바의 고백처럼, 단 한 존재와의 깊은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을 향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이어진다

출판사 핑거 금액 1만7천원



그라운드·골프 필독교과서

글 양재부

국내 최초 그라운드 골프 완전 정복서다. 기초 이론부터 스윙 자세, 클럽 사용법, 경기 규칙과 매너까지 한 권에 체계적으로 담았다.

저자 양재부는 국제대회 YURIHAMA에 3년 연속(2023~2025년) 참가해 홀인원상을 수상한 실전 지도자다. 복잡한 설명 대신 실제 경기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요령을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낸다. 혼자서도 차근차근 익힐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한 것이 강점이다. 생활체육으로서 그라운드 골프의 즐거움과 지속성을 함께 짚는 실용 교과서다. 어르신 체육 활동과 지역 동호회 운영에도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준다.

출판사 미다스북스 금액 2만1천원



상사화 연인

글 정승수

『상사화 연인』은 끝내 이뤄지지 못한 사랑이 한 사람의 삶에 어떤 흔적으로 남는지를 따라가는 소설이다. 닿을 듯 닿지 않았던 관계, 말하지 못한 감정, 선택 이후에 남은 시간들이 차분하게 이어진다. 이 작품에서 사랑은 성취보다 기억으로 남고, 만남보다 더 길게 이어지는 것은 이별 이후의 삶이다.

춘천에서 태어난 시인이자 소설가 정승수는 향 깊은 우리말을 절제된 문장 속에 담아, 과장 없이 인물의 선택과 침묵을 그려낸다. 42년간 교직과 문학의 길을 걸은 작가는 사랑을 미화하지 않는다. 대신 이루어지지 않은 인연이 한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조용히 보여준다.

출판사 북랩 금액 1만3천8백원

봄내 아트

봄내가 추천하는 이달의 예술소식



춘천시립합창단 제126회 정기연주회 '봄마중: 가곡으로 맞이하는 봄의 소리' 공연

국악과 서양음악의 협업, 춘천시립합창단의 이번 공연은 힌데미트의 상송과 우리 가곡, '난감하네', '전래놀이 노래' 등 국악의 흥을 합창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특히 위촉 작곡가 안효영의 '소낙눈'을 통해 눈부신 봄의 찰나를 선율로 기록합니다.

- * 관람연령 : 초등학교(2019년생) 이상 관람가
- * 관람료 : 춘천시민 1만원, 청소년 및 경로 7천원, 그 외 지역 1만5천원

일시 3.12.(목) 19:30 문의 259-5874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시립교향악단 제184회 정기연주회 공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만나는 춘천시향의 정기연주회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폭넓은 레퍼토리와 섬세한 해석, 깊은 음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출연합니다.

- * 관람연령 : 초등학교(2019년생) 이상 관람가
- * 관람료 : 춘천시민 1만원, 청소년 및 경로 7천원, 그 외 지역 1만5천원

일시 3.20.(금) 19:30 문의 259-5869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연극 '노인의 꿈' 공연

모든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감동의 화제작 연극 '노인의 꿈'이 춘천을 찾아옵니다. 김영옥, 손숙, 신은정, 이일화 등 익숙한 얼굴의 배우들이 연극에 출연합니다. 세상 '힉한' 할머니들의 인생 마지막 프로젝트, 지금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 * 관람연령 : 초등학교(2019년생) 이상
- * 관람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할인 혜택은 홈페이지 참조
- * 총 3회 공연 진행

일시 3.27.(금) 19:30 / 3.28.(토) 14시, 18시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문의 259-5822



춘천시민 충전UP! 토크콘서트 강연

일상 속 지친 마음을 충전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립니다. 은퇴 후 모험을 경험한 윤영선 작가가 '유라시아 횡단 22,000km 낭만과 느낌'을 주제로, 방송에서 얼굴을 알린 김소형 한의사는 '백세시대 스스로 건강법'을 주제로 강단에 섭니다.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으로 무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 공식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강연을 생중계합니다.

일시 3.5.(목), 3.12.(목) 16시 문의 245-5192
장소 춘천시청 대회의실 / 춘천시평생학습관 대강당



심수진 기획전

전시

<손끝에서 피어나다: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

함경남도 출생의 북한이탈주민 심수진 작가는 한국 정착 이후 본격적으로 회화를 시작했습니다. 크랙 기법의 한지 작업과 나뭇잎, 꽃아웃 시리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 꽃, 나비 등 자연의 상징을 통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일시 1.20.(화)~3.31.(화) 문의 249-3097
장소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1층 전시체험실



2026 시민소통전

전시

<다시! 시작의 자리: 지금 여기, 우리가 예술을 하는 이유>

한 해의 시작점에서 예술가들은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지역에서 예술을 하는가?” 이번 전시는 완성이나 성과보다 각자가 서 있는 현재의 위치와 작업의 태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드러내는 데 의미를 둡니다. 한 해의 출발선에서 스스로를 선언하는 이 단체전은 동시대 지역 예술의 현재를 비추는 자리입니다.

일시 2.27.(금)~3.4.(수)
장소 문화공간 역 문의 010-8827-7852

문화도시, 미술을 탐하다

전시

수료생 전시

춘천미술관 미술교육사업인 ‘문화도시, 미술을 탐하다’는 시민들이 미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수업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예술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문미탐8’ 2기와 ‘문미탐9’ 1기 수료생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간 3.13.(금)~3.18.(수) 문의 241-1856
장소 춘천미술관 2층

춘천미술관 상설전

전시

청년프로젝트 <길 위의 우리>

청년 작가와 시민이 함께 만든 프로젝트와 결과물을 전시하며, 창작의 과정과 결과를 함께 나누고 예술의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기간 3.13.(금)~3.18.(수) 문의 241-1856
장소 춘천미술관 1층

이민혁 개인전

전시

<봄날, 봄내>

30년 화업(畵業)의 길을 걸어온 이민혁 화가가 연어처럼 춘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작가의 내면을 담은 지난 작업 ‘겹’과 춘천의 생명력을 담은 신작 ‘결’을 함께 선보이는 회고전입니다. 세월의 궤적이 쌓인 구작과 춘천의 봄 풍경이 주는 설렘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예술적 회귀를 통해 피어난 작가의 진솔한 화업의 정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간 3.20.(금)~4.1.(수)
장소 춘천미술관 1·2 전시실 문의 010-9036-0363

봄내골소식

춘천의 미담사례 소개

나눔

희망찬나눔회(회장 최초희)는 1월 13일 효자2동 저소득층 아동 3명에게 장학금 180만원을 후원했다.



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변옥철)는 1월 15일 동면 지역 취약계층 80가구에 생필품 및 식품으로 구성된 행복나눔꾸러미를 전달했다.

퇴계동 자율방범대(대장 김만복)는 1월 21일 퇴계동행정복지센터에 '희망2026 나눔 캠페인' 성금 30만원을 전달했다.



토마스 요양병원(원장 홍진식)은 1월 22일 저소득층을 위한 반찬 20세트를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후평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피재남)는 1월 23일 후평2동행정복지센터에 취약계층을 위한 김 30박스를 후원했다.

김태백축산물판매점(대표 김태백)은 1월 23일 후평2동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골 20kg을 기증했다.



효자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강순분)는 1월 26일 취약계층에 김 20박스를 후원했다.

소양동주민자치회(회장 정락병)는 1월 26일 소양동행정복지센터에 저소득층 청소년 5명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1인 20만원)을 후원했다.

보문각(대표 김선미)은 1월 26일 취약계층을 위해 양곡 4kg, 10포를 약사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장영각(새마을문고 춘천시지부 동내면분회장)은 1월 28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 90박스(120만원 상당)를 동내면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춘천성산교회(목사 정용식)는 1월 29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319만2천원을 근화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소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김영숙)는 1월 29일 소양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 3명에게 장학금 90만원(1인 30만원)을 후원했다.

춘천석사감리교회(담임목사 손학균)는 1월 29일 춘천반석지역아동센터에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트레킹화 10켤레를 전달했다.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가 1월 30일 신사우동행정복지센터에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우석중학교 사회적경제교육 동아리는 교내 축제 플리마켓 부스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 30만원을 2월 3일 석사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익명의 기부자가 2월 2일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쌀 50kg을 효자2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주)우주푸드빌(대표 이용진)은 2월 3일 신북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사회 저소득가구를 위한 한돈스테이크 902개(약 113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김태백축산물판매점(대표 김태백)은 2월 3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한우사골 등 40kg(약 40만원 상당)를 신북읍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춘천세무서(서장 강찬호) 직원들은 2월 4일 취약계층을 위한 격려금 60만원과 생필품(45만원 상당)을 약사명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사단법인 월드쉐어(지부장 김미라) 및 **춘천운전면허시험장**(단장 엄태인)은 2월 4일 신북읍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오뚜기 선물세트 150개(6백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후평3동 새마을 부녀회(회장 장미화)는 2월 4일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경로당을 위한 후원물품(떡, 만두, 김 등)을 전달했다.

우리재가복지센터(센터장 신윤선)는 2월 5일 소양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홀몸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카놀라유 80세트(1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아이존어린이집(원장 홍기선)은 2월 5일 겨울간식가게를 통해 모금한 성금 44만6천원을 남산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지구시민연합 강원지부(지부장 신미용)는 2월 6일 석사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탕국과 김치 10세트(7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약사명동주민 **유종근**은 2월9일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약사명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신북적십자봉사회(회장 박순희)는 2월 7일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해 떡 20kg과 제빵 봉사활동으로 만든 빵 650개를 무지개동 산, 신북읍 3개 경로당, 신북읍 독거노인에게 전달했다.



춘천중부새마을금고(이사장 이계영)는 2월 9일 설을 맞이해 효자1동 취약계층을 위한 컵떡국 30박스(180개)를 전달했다.

효자1동복지위원회(위원장 박인호)는 2월 9일 설을 맞이하여 효자1동 고령 및 독거 20가구에 김과 라면 박스를 전달했다.

춘천성광교회(목사 조용아)는 2월 9일 석사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춘천사랑상품권 200만원(1만원권 200매)을 기부했다.



동내면 늘소망교회(담임목사 이희용)는 2월 9일 동내면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만원을 기부했다.

봄내골소식

춘천의 미담사례 소개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춘천도시공사 **봄내골 나눔봉사회**는 이용자 중 생활이 어려운 15가구를 선정해 기저귀 등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춘천중부새마을금고(이사장 이계영)는 설 명절을 맞아 9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컵떡국(30세트 50만원 상당)을 강남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지구대장 심재갑)와 **생활안전협의회**(회장 신을순)는 2월 9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료품 세트(100만원 상당)를 강남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사단법인 **예맥무천예술보존회**(회장 권태리)는 2월 10일 효자2동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반찬(3종) 40세트를 후원했다.

가산감리교회(목사 윤영호)는 2월 10일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선물세트 200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춘천중부새마을금고(이사장 이계영)는 2월 10일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설 명절을 맞아 컵떡국 180개를 후원했다.

춘천시산림조합(조합장 임동일)은 2월 10일 저소득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4kg 20포), 라면(40입 12박스) 등 85만원 상당의 물품을 강남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후평2동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최경숙)는 청소년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30만원을 후평2동행정복지센터에 후원했다.

봉사 및 행사

후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정임)는 1월 13일 어려운 이웃 25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포포렛 딸기농장(대표 권오현)에서는 1월 14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딸기 수확 체험을 진행했다.



살롱드제이플랜(점장 지준오)은 1월 20일과 2월 10일 퇴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어르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마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아빠&딸 가족봉사단**은 1월 20일 방한키트 20세트를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춘천시드림스타트는 1월 21일 드림스타트 아동 20명과 함께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를 방문해 '겨울방학 스키캠프'를 진행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본부장 고복희)는 1월 21일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배식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보타사관음손 봉사단(단장 차경익, 주지 진철)은 1월 22일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44가구에 반찬봉사활동을 했다.

더든든한 반찬가게(대표 조승호)는 1월 9일과 1월 23일 효자1동에 거주하는 독거 및 장애인 15가구에 반찬과 국을 전달했다.



교통주민주자치센터 서예교실(강사 홍수의, 반장 윤기명) 수강생은 1월 26일 교통주민 130가구에 새해의 길운을 기원하는 입춘첩을 전달했다.

봉사단체 **강원선우회**(회장 석범준)는 1월 27일 관내 식당에서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120여 명을 초청하여 무료 점심을 대접했다.



남산면부녀회(회장 이막내)는 1월 28일 21개 리 경로당에 기부물품(김세트)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신북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신림)는 2월 3일 신북읍행정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 등 41가구를 대상으로 후원 반찬 전달봉사를 실시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본부장 고복희)는 2월 5일 애민보육원 아동 대상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동면 선한사람들 모임(회장 김현숙) 및 **대한미용협회 춘천시지부**(지부장 유나경)는 2월 5일 동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내 노인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이발·네일아트)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의암수력발전소(소장 업무대행 양진우)는 2월 9일에 신동면의 암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23명에게 선물세트(김, 참치, 스팸 등)를 전달하는 후원행사를 진행했다.



고모네삼계탕(대표 김영희)은 2월 10일 신동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30그릇을 전달했다.

신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경순)는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30가구를 직접 방문해 삼계탕 및 명절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조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범순)는 2월 10일 취약 계층 24가구를 대상으로 떡과 만두를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장학금 기탁

김창혁(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1월 14일 장학금(300만원)을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봄담은산채(대표 김순옥)는 1월 14일 장학금(140만원)을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



한국생활개선회 춘천시연합회(대표 김성자)는 1월 27일 장학금(200만원)을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



홍영(춘천도시공사 사장)은 1월 27일 장학금(300만원)을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주민자치센터 공통사항 안내 ※ 공고문 확인 필수

- ▶ 운영기간: 2026년 4월~6월(3개월)
- * 북산면, 소양동, 교동, 후평1·2동: 1월~6월(6개월)
- ▶ 수강료 접수시 현금 선납(카드 불가)
- ▶ 교재비,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 ▶ 강의 신청 등 사정에 따라 교육 일정 조정 및 폐강 가능
(읍면동 홈페이지 공고문 반드시 확인)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모집기간: 관내 3.16.(월) ~ 3.18.(수)
관내·외 3.19.(목) ~ 3.20.(금)
모집방법: 본인 방문(선착순 접수, 대리접수 불가)
※ 신분증 및 감면 증빙서류 지참
문의: ☎241-8905, 245-5278

프로그램	인원	일정	수강료
문인화	12	월 10:00~12:00	3만원
한글서예	12	목 09:30~11:30	3만원
도예 (테라코타미니토분)	12	금 13:00~15:00	3만원
요가(주간)	30	월, 수 09:20~10:50	3만원
요가(야간)	30	화, 목 19:00~20:30	3만원
바른자세스트레칭	30	월, 수 19:30~21:00	3만원
라인댄스(A)	30	월, 수 18:00~19:30	3만원
라인댄스(B)	30	화, 목 17:30~19:00	3만원
농악	20	화 13:00~16:00	3만원
민요장구	20	화, 목 10:00~12:00	4만5천원
난타	20	수, 목 14:00~16:00	4만5천원
합창	20	금 13:30~15:30	3만원

동면 행정복지센터

모집기간: 관내 3.17.(화) ~ 3.20.(금)
관외 3.19.(목) ~ 3.20.(금)
모집방법: 본인 방문(선착순 접수, 대리접수 불가)
※ 신분증 및 감면 증빙서류 지참, 계좌이체 불가
문의: ☎245-5329

프로그램	인원	일정	수강료
요가	30	월, 수 10:00~12:00	4만5천원
라인댄스A	25	화, 금 10:00~12:00	4만5천원
라인댄스B	30	월 15:00~16:30 화 15:00~16:30	3만원
스트레칭&깁닝운동	30	월 13:30~15:00 수 13:00~14:30	3만원
서예교실	15	월, 금 14:00~16:00	4만5천원
수채캘리그래피	20	수 14:00~16:00	3만원
생활영어	30	화, 목 14:00~16:00	4만5천원
색소폰(중·고급)	30	수 18:00~20:00	3만원
노래교실	25	수, 금 10:00~12:00	4만5천원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모집기간: 관내 3.16.(월) ~ 3.18.(수)
관내·외 3.19.(목) ~ 3.20.(금)
모집방법: 본인 방문(선착순 접수, 대리접수 불가)
※ 신분증 및 감면 증빙서류 지참
문의: ☎263-2663, 245-5387

노래	30	월, 수 13:00~15:00	4만5천원
요가A	30	월, 수 09:00~10:30	3만원
요가B	30	월, 수 10:30~12:00	3만원
라인댄스A	30	수 13:00~14:30 금 09:00~10:30	3만원
라인댄스B	30	수 14:30~16:00 금 10:30~12:00	3만원
민요	30	수, 금 09:30~11:30	4만5천원
이지댄스	30	월, 금 15:30~17:00	3만원
농악	40	토 10:00~11:30	3만원
캘리그래피	20	토 10:00~12:00	3만원
탁구	20	토, 일 10:00~12:00	4만5천원
배드민턴	20	월, 수, 금 05:00~07:00	6만원
통기타	20	화, 목 13:30~15:30	4만5천원

※ 배드민턴 수업의 경우 코트 사용에 있어 관내 동호인 클럽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 동내면 주민만 신청 가능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모집기간: 관내 3. 9.(월) ~ 3.12.(목)

관외 3.13.(금) 09:00 ~ 18:00

※ 점심시간 미운영

모집방법: 본인 방문(선착순 접수, 대리접수 불가)

※ 신분증 및 감면 증빙서류 지참

문 의: ☎245-5363

프로그램	인원	일정	수강료
농악	20	화, 수 16:30 ~ 18:00	3만원
민요	20	월 13:00 ~ 14:30 목 14:00 ~ 15:30	3만원
요가 I	15	월, 수 14:00 ~ 15:30	3만원
요가 II	15	목, 금 10:00 ~ 11:30	3만원
라인댄스A	15	화, 목 13:00 ~ 14:30	3만원
라인댄스B	15	월, 수 15:40 ~ 17:10	3만원
웃음노래교실	20	월, 수 13:00 ~ 14:30	3만원
탁구	20	화 09:00 ~ 12:00	3만원
민화A	10	월 09:00 ~ 12:00	3만원
민화B	10	수 09:00 ~ 12:00	3만원
컬트	20	화, 목 10:00 ~ 11:30	3만원
어반스케치	20	화 14:00 ~ 15:30 금 10:00 ~ 11:30	3만원

※ 신규과목인 컬트·어반스케치는 강사모집현황에 따라 폐강될 수 있으며, 모든 과목은 모집인원 10명 미만, 또는 모집인원의 60% 미만일 시 폐강될 수 있음.

사북면 행정복지센터

모집기간: 관내 3.16.(월) ~ 3.20.(금)

관외 3.19.(목) ~ 3.20.(금)

모집방법: 본인 방문(선착순 접수, 대리접수 불가)

※ 신분증 및 감면 증빙서류 지참

문 의: ☎250-3609

난타교실	15	월, 목 20:00~22:00	4만5천원
민화그리기A	15	화 13:00~18:00	4만5천원
민화그리기B	15	목 13:00~18:00	4만5천원
탁구교실A	15	월, 목 19:00~21:00	4만5천원
탁구교실B	15	화, 금 20:00~22:00	4만5천원
탁수교실C	15	화, 목 18:30~20:30	4만5천원
요가	15	화, 금 19:00~21:00	4만5천원
요가(청소년)	15	월, 수 18:30~20:30	4만5천원

서면 행정복지센터

모집기간: 관내 3. 9.(월) ~ 3.13.(금)

관외 3.12.(목) ~ 3.13.(금)

모집방법: 본인 방문(선착순 접수)

※ 신분증 및 감면 증빙서류 지참

문 의: ☎252-5474

프로그램	인원	일정	수강료
건강체조	30	월, 수 13:00~15:00	4만5천원
라인댄스	30	화, 목 19:00~21:00	4만5천원
합창	40	금 19:00~21:00	3만원
미술	15	일 16:00~18:00	3만원
탁구교실	20	화, 금 13:30~15:30	4만5천원
난타	25	월, 수 18:30~20:30	4만5천원
농악	25	화 17:00~19:00 토 18:30~20:30	4만5천원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모집기간: (1차) 관내 3. 9.(월) ~ 3.10.(화)

(2차) 관내·외 3.11.(수) ~ 3.12.(목)

※ 2차 모집은 1차 모집결과 정원 미달인 경우에만 실시

모집방법: 1) 온 라인 춘천시평생학습통합플랫폼 '배워봄'

2)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5층 본인 방문

※ 신분증 및 감면 증빙서류 지참/정원 초과 시 관내주민 우선추첨

문 의: ☎262-4218, 245-5769

라인댄스	30	수, 금 15:30 ~ 17:30	4만5천원
웃음 노래교실	40	월, 수 10:00~12:00	4만5천원
파워건강체조	25	화, 목 15:30~17:30	4만5천원
필라테스	25	월 15:30~17:30 수 13:00~15:00	4만5천원
요가교실	30	화 10:00~12:00 목 13:00~15:00	4만5천원
노래교실	50	화 13:00~15:00 목 15:30~17:30	4만5천원
난타교실(초급)	20	목 10:00~12:00	3만원
난타교실(중급)	20	월 10:00~12:00	3만원
한국무용	20	수, 금 10:00~12:00	4만5천원
하모니카	30	화 15:30~17:30 목 13:00~15:00	4만5천원
영어교실	30	화, 금 10:00~12:00	4만5천원
사교댄스	남20 여20	월, 화 13:00~15:00	4만5천원
민화그리기	20	월, 금 13:00~15:00	4만5천원
캘리그래피	20	목 10:00~12:00	3만원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모집기간: 3.16.(월) ~ 3.20.(금)
모집방법: 본인 방문(선착순 접수, 대리접수 불가)
※ 신분증 및 감면 증빙서류 지참
문 의: ☎070-8845-3613

프로그램	인원	일정	수강료
국학기공	15	월, 수 10:00 ~ 11:30	3만원
한국무용(기초)	15	월 13:00 ~ 15:00 수 14:00 ~ 16:00	4만5천원
한국무용(중급)	15	월 15:10 ~ 17:10 금 10:00 ~ 12:00	4만5천원
난타	15	화 10:00 ~ 12:00	3만원
고고장구	15	화, 금 13:30 ~ 15:30	4만5천원
한국화	15	월 10:00 ~ 12:00	3만원
노래교실	15	수 10:00 ~ 12:00	3만원
캘리그래피	15	화 10:00 ~ 12:00	3만원
한문서예	15	화 14:00 ~ 16:00	3만원
민화	15	목 10:00 ~ 12:00	3만원
생활도예	15	수 14:00 ~ 16:00	3만원
한글서예	15	금 10:00 ~ 12:00	3만원

※ 수업별 재료비는 별도 문의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모집기간: 관내 3.17.(화) ~ 3.18.(수) 09:00~17:00
관외 3.19.(목) ~ 3.20.(금) 09:00~17:00
모집방법: 본인 방문(선착순 접수, 대리접수 불가)
※ 신분증 및 감면 증빙서류 지참, 점심시간 미운영
문 의: ☎910-0614, 245-5606

노래교실	50	월,수 10:00~12:00	4만5천원
웃음교실	40	화,금 10:00~11:30	3만원
민요와장구	20	수 10:00~12:00 금 09:30~11:30	4만5천원
우리춤체조	20	월,목 10:00~12:00	4만5천원
라인댄스(초급)	40	화,목 14:00~16:00	4만5천원
라인댄스(중급)	30	월,수 13:30~15:30	4만5천원
요가	30	화 10:00~11:30 금 15:00~16:30	3만원
민요춤체조	20	화 11:45~13:45 금 12:30~14:30	4만5천원
건강체조 (만60세 이상)	40	월, 수 16:00~17:00	무료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모집기간: 관내 3.16.(월) ~ 3.18.(수)
관외 3.19.(목) ~ 3.20.(금)
* 3.19.(목) 08:00부터 접수 시작
모집방법: 본인 방문(선착순 접수, 대리접수 불가)
※ 신분증 및 감면 증빙서류 지참
문 의: ☎245-5628

프로그램	인원	일정	수강료
댄스스포츠(중급)	24	화, 금 10:00~12:00	4만5천원
민화	13	화, 목 15:30~17:30	4만5천원
난타교실(초급)	15	금 13:30~15:00	3만원
난타교실(중급)	15	금 12:00~13:30	3만원
요가교실	30	월, 수 16:00~17:00	무료
라인댄스	24	월, 수 10:00~12:00	4만5천원
팬플룻	25	목 10:00~12:00	3만원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모집기간: 관내 3.16.(월) ~ 3.18.(수)
관내·외 3.19.(목) ~ 3.20.(금)
모집방법: 본인 방문(선착순 접수, 대리접수 불가)
※ 신분증 및 감면 증빙서류 지참
문 의: ☎245-5687, 070-8835-3618

노래교실	40	화,목 10:00~11:30	3만원
탁구교실A	20	월,수 10:00~11:30	3만원
탁구교실B	20	금 09:00~12:00	3만원
산수화	20	월,목 13:30~15:00	3만원
수채화	25	수,금 10:00~11:30	3만원
제빵(A)	10	월 09:30~12:30	3만원
제빵(B)	10	금 13:30~16:30	3만원
라인댄스(초급)	35	화,목 11:30~13:00	3만원
라인댄스(중급)	35	화,목 10:00~11:30	3만원
요가&필라테스(A)	35	수,금 12:20~13:50	3만원
요가&필라테스(B)	35	수,금 14:00~15:30	3만원
스포츠댄스	30	화,목 13:30~15:00	3만원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

모집기간: 관내 3.9.(월) ~ 3.10.(화)

관외 3.11.(수) ~ 3.12.(목)

모집방법: 본인 방문(선착순 접수, 대리접수 불가)

※ 신분증 및 감면 증빙서류 지참

문의: ☎070-7377-5580

프로그램	인원	일정	수강료
노래교실	45	화,목 10:00~12:00	4만5천원
통기타교실	25	수,목 13:00~15:00	4만5천원
한국무용	20	화 09:00~11:00 목 10:00~12:00	4만5천원
요가(호흡, 명상)	25	화 11:00~13:00 금 10:00~12:00	4만5천원
민요교실	20	월,금 10:00~12:00	4만5천원
웃음치료	25	월 13:00~14:30 수 10:00~11:30	3만원
탁구교실	22	월 10:00~12:00 수 14:00~16:00	4만5천원
라인댄스	25	월,금 13:00~15:00	4만5천원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모집기간: 관내 우선 3.16.(월) ~ 3.17.(화)

관내·외 3.18.(수) ~ 3.19.(목)

모집방법: 본인 방문(선착순 접수, 대리접수 불가)

※ 신분증 및 감면 증빙서류 지참

문의: ☎245-5746

탁구	20	화,목 13:30~15:00	3만원
웃음운동교실	30	월,수 15:00~16:30	3만원
건강교실	20	월,수,금 10:30~11:30	3만원
요가	30	월,수,목 16:30~17:30	3만원
라인댄스	30	화,목 10:30~12:00	3만원
노래교실	20	월,수 13:00~14:30	3만원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활용법	15	월,수 09:00~10:30	3만원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모집기간: 관내 3.16.(월) ~ 3.20.(금)

관외 3.18.(수) ~ 3.20.(금)

모집방법: 본인 방문(선착순 접수, 대리접수 불가)

※ 신분증 및 감면 증빙서류 지참

문의: ☎255-3920

프로그램	인원	일정	수강료
웃음운동교실	25	화,목 15:00~16:30	3만원
요가	35	월,수,금 14:00~15:00	무료
라인댄스	30	화,목 10:00~11:30	3만원
댄스스포츠(중급)	35	월,수 10:00~12:00	4만5천원
사교댄스	남녀각21	화,목 14:00~16:00	4만5천원
탁구	30	월,수 15:30~17:00	3만원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모집기간: 관내 3.17.(화) ~ 3.20.(금)

관외 3.19.(목) ~ 3.20.(금)

모집방법: 본인 방문(선착순 접수)

※ 신분증 및 감면 증빙서류 지참, 점심시간 미운영

문의: ☎252-7736, 245-5859

요가A	30	월,금 15:00~16:30	3만원
요가B	30	화,목 10:30~12:00	3만원
실버라인댄스	30	화,목 13:30~15:00	3만원
라인댄스	30	화,목 15:30~17:00	3만원
탁구초급A	20	월 15:00~17:00 수 13:00~15:00	4만5천원
탁구초급B	20	화,목 10:00~12:00	4만5천원
탁구중급A	20	화,금 14:00~16:00	4만5천원
탁구중급B	20	수,금 10:00~12:00	4만5천원
서예	20	월,금 10:00~12:00	4만5천원
오카리나	20	수 14:50~17:50	4만5천원
통기타	25	월,수 10:00~12:00	4만5천원
우리춤	20	월,수 12:30~14:30	4만5천원
태권도	20	금 10:00~12:00	무료
몸펴기운동A	20	목 16:00~18:00	3만원
몸펴기운동B	20	목 19:00~21:00	3만원
사물놀이	20	화,금 17:00~19:00	4만5천원

2026년 2분기에 진행될 알찬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모집기간: 관내 3. 3.(화) ~ 3. 6.(금)
관외 3. 6.(금)

문의: ☎ 245-5087, 5816

프로그램	인원	일정	수강료
건강파워체조	30	화,목 11:00~13:00	4만5천원
기타교실	30	화,목 10:00~12:00	4만5천원
노래교실	50	수,금 13:00~15:00	4만5천원
댄스스포츠	30	화,목 09:00~11:00	4만5천원
라인댄스	35	화,목 13:00~15:00	4만5천원
민화교실	20	화 14:00~16:00 금 10:00~12:00	4만5천원
사교댄스	남녀각15	월,수 11:00~13:00	4만5천원
생활요가	30	월,수 09:00~11:00	4만5천원
스마트폰 활용법	20	월 10:00~12:00	3만원
탁구교실	30	월,금 14:00~16:00	4만5천원
하모니카	30	월,수 15:30~17:30	4만5천원
한글서예	15	월 13:00~15:00 목 14:00~16:00	4만5천원
태권체조	30	금 10:00~12:00	무료

문의: ☎ 241-0368, 245-5599

프로그램	인원	일정	수강료
라인댄스 A	40	수, 금 09:10~10:40	3만원
라인댄스 B	40	수, 금 13:30~15:00	3만원
국학기공	50	화, 목 10:30 ~ 12:00	3만원
탁구교실	30	월, 수 11:00~12:30	3만원
요가교실	45	화, 목 13:30~15:00	3만원
스포츠댄스	30	월, 금 15:30~17:30	4만5천원
노래교실 A	50	화, 금 13:00~15:00	4만5천원
노래교실 B	50	월, 목 15:30~17:30	4만5천원
통기타	30	월, 수 13:00~15:00	4만5천원
생활영어(초급)	40	수, 금 15:20~17:20	4만5천원
중국어	30	화 15:30 ~ 17:30 목 13:00 ~ 15:00	4만5천원
태권교실	40	월 09:10 ~ 10:40 금 11:00 ~ 12:30	무료

시정정보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2.11.(수) ~ 3. 6.(금)
지원대상: 청년근로자 150명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낮은 순으로 선발
지원조건 (아래요건 모두 충족)
-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4. 1. 1. 이후
신규 입사하여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동일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주 36시간 이상)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19세 ~ 45세 춘천시
청년근로자 (1981년~2007년 출생자)
지원내용: 춘천사랑상품권(모바일) 100만원
※건강관리, 여가활동, 학원수강, 도서·음반 구입 등
지급시기: 2026. 4월, 9월
신청방법: 행정포털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신청
(easy.gwd.go.kr)
신청문의: ☎ 250-4434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홈페이지: www.cchildcare.or.kr
관련문의: ☎ 241-0756

프로그램	신청대상 및 진행일시	인원
영유아 발달이해	관내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3.11.(수) 10:00~12:00	11
핸드크림& 롤온퍼품	관내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3.17.(화) 10:00~12:00	10
우리아이 성교육	관내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3.19.(목) 10:00~12:00	20
(쑥쑥 신체놀이) 튼튼 체육	20년생~22년생 자녀와 양육자 [1차] 3. 7.(토) 10:00~10:40 [2차] 3. 7.(토) 10:45~11:25 [3차] 3. 7.(토) 11:30~12:10	회차당 10
(꼬물 예술놀이) 플레이뮤직	6개월~30개월 자녀와 양육자 [1차] 3.14.(토) 10:00~10:40 [2차] 3.14.(토) 10:50~11:30 [3차] 3.14.(토) 11:40~12:20	회차당 10

춘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안내

* 중독(알콜, 인터넷, 도박, 약물) 관련 상담전문기관
이용절차: 상담 및 의뢰 → 면접 및 평가
→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병원의뢰 및 지역사회연계 위기 개입,
예방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중독자 지원 프로그램,
중독자 가족 지원프로그램,
청소년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등
관련문의: ☎ 255-3482

2026년 3월 희망저축계좌 I 1차 모집 안내

신청기간: 3. 3.(화) ~ 3.13.(금)
모집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지원내용: 매월 10~5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원 지원
→ 3년 만기 시 1,440만원 + 이자 지급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복지정책과 ☎ 250-3379

2026년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3. 3.(화) ~ 11.30.(월)
신청대상: 입학일~신청일까지 계속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026년 초등학교 신입생(외국인 포함)
지원금액: 춘천사랑상품권 10만원(모바일/지류)
신청자격: 대상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주민등록을 같이한 사실상 보호양육자)
신청방법: 온라인(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 또는 방문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관련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교육도시과 ☎ 250-3009

시정정보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신청 안내

신청자격: 저소득 등록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제외대상

- 국가·자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장애인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선정 제외

지원내용: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가구당 380만원 한도)

※안전손잡이, 싱크대 높이조절, 문턱제거 등

지원가구: 10가구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이 작성한 수선 및 수선 후 4년이상 임대 동의서 필요

신청기간: 3. 2. ~ (예산소진시까지)

문의처: ☎ 250-4198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자격: 춘천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제외대상: 주거급여 지급대상(단, 실제 지원이 없는 경우 가능), 비주택 거주자 등, 타 사업에서 집수리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지원내용: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보수를 제외한 경·중 보수
(가구당 400만원 한도)

※구조물,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등

지원가구: 8가구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이 작성한 수선 및 수선 후 4년 이상 임대 동의서 필요

신청기간: 3. 2. ~ 3.13.

문의처: ☎ 250-4198

2026해비타트춘천지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기간: 2. 2.(월) ~ 3. 6.(금)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주거취약계층
- 갑작스러운 재난 등을 통해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자
※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닐 경우 집주인 허락 필요

지원규모: 총 2억2천만원(세대당 최대 3천만원)

지원내용: 노후화 주택 보수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사항: ☎ 250-3496

고령운전자 차량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지원

신청기간: 2.23.(월) ~ 3.20.(금)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춘천시청 교통과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본인 명의 차량 소유 실운전자

신청유형

- ① 영업용차량(사업용, 농업용)
- ②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지역 거주자(희망택시 운행 마을 지역)
- ③ 면허반납 어려운 자(찾은병원방문이 필요한자또는 그 보호자)

필수제출: 지원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관련문의: ☎ 250-4094

2026년 아동 야간 연장돌봄 사업 안내

지원대상: 긴급 상황 시 돌봄 필요한 아동(6세~12세) 누구나

운영시간: 주중, (1형) 18시~22시, (2형) 18시~24시

운영개소: 관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1형 3개소, 2형 1개소)

연장운영시간	지역아동센터명(소재지)
18:00~22:00	벤엘(우두동) / 에벤에셀(후평동) / 퇴계지역아동센터(퇴계동)
18:00~24:00	춘천지역아동센터(효자동)

신청방법: 전화 신청 ☎ 255-1008

※이용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사전예약 원칙

이용료: 1일 5,000원 이내(취약계층 아동 무료)



시정정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LH-YMCA 퇴계푸름이 지역아동센터	승지골길16번길 14, 관리동 2층(퇴계동)	254-1291
LH행복꿈터 춘천YMCA 만천 지역아동센터	동면 후석로326번길 96 만천LH@ 104동 1층	255-1201
LH행복꿈터 춘천YMCA 장학 지역아동센터	동면 소양강로 100, 106동 2층	255-1231
갈릴리 지역아동센터	우두강독길 163 (우두동)	256-5922
강북 지역아동센터	화목원길 45 (사농동)	242-7427
근화 지역아동센터	공지로441번길 12(근 화동)	242-4314
깨비 지역아동센터	효자로 90(효자동)	251-6150
꿈마을 지역아동센터	사북면 원평길 45	243-1138
꿈샘 지역아동센터	후석로228번길 47(후평동)	242-0055
늘기쁜 지역아동센터	공지로 108(석사동)	262-0616
달팽이 지역아동센터	삭주로 113, 101동 105호 (후평동)	255-7753
드림 지역아동센터	백령로 212(후평동)	255-0091
벨엘 지역아동센터	충열로16번길 13(우 두동)	242-4210
별빛 지역아동센터	사북면 춘화로 469	243-1821
보듬 지역아동센터	외솔길19번길 5-6(석사동)	263-0101
봄내 지역아동센터	삭주로 36-2(교동)	243-6412
사북사랑 자람터 지역아동센터	사북면 영서로 4763-8	243-9511
에벤에셀 지역아동센터	후만로116번길 5-4(후평동)	911-3903
월드비전지역아동 센터	근화길 95(효자동)	254-7255

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은혜 지역아동센터	두하길 14(효자동)	254-8861
춘천반석 지역아동센터	후석로46번길 28(석 사동)	263-6777
춘천성체 지역아동센터	당간지주길74번길 13(근화동)	255-7981
춘천중앙 지역아동센터	약사고개길 14 (죽림동)	256-3532
춘천 지역아동센터	두하길25번길 7-8(효 자동)	257-3636
춘천햇살 지역아동센터	신복읍 신복로 34, 2층	242-8410
춘천효자 지역아동센터	공지로 234-16 (효자동)	261-1799
퇴계 지역아동센터	행촌로 43(퇴계동)	244-5637
하늘씨앗 지역아동센터	후만로116번길 40(후 평동)	253-5225
한길 지역아동센터	후석로 267, 2층 (후평동)	253-2338
한림해피존 지역아동센터	삭주로 35, 2층 (교동)	243-1813
해님또래 지역아동센터	퇴계로146번길 8-8(퇴계동)	252-0464
큰콩 꿈자람나눔터	동내면 거두리 1115 큰 콩공원 내	264-1096
퇴계 꿈자람나눔터	지석로 32(퇴계동)	910-3228
석사 꿈자람나눔터	후석로 48(석사동)	263-6111
근화 꿈자람나눔터	당간지주길74번길 11- 14(근화동)	254-3356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우두하리길 15, 2층(우 두동)	253-0501
한숲 꿈자람나눔터	안마산로 133 (퇴계동)	243-6222
우두 꿈자람나눔터	우두1길 70(우두동)	244-9116



알림마당

시민과 가까운 소식, 생활에 도움되는 소식을 전합니다

시정정보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대상 시행 알림

신청기간: 2.23.(월) ~ 3.20.(금) 18:00까지

신청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또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2024년 12월 말 대비 2025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3%(인구감소·접경지역) 또는 5% 이상인 기업

자격업종: 전체 산업분야 업종

※국민정서와 사업목적에 반하는 일부 업종은 대상 제외

지원사항: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우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기업 방송 홍보 등

접수처: 춘천시 기업지원과 ☎ 250-4477

관련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 256-9602,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 ☎ 249-3241

체험행사

제15회 의암류인석 전국 휘호대회

행사일시: 4.12.(일) 09:30~12:00

행사장소: 의암류인석기념관

참여대상: 전국 서예인

관련문의: ☎ 244-5106

춘천시립도서관 문화행사

관련문의: ☎ 245-5063, 5138, 5301

1. 춘천인형극제와 함께하는 인형극 - 찾아가는 수레 극장 <배고파>

대상: 전연령 일시: 3.21.(토) 14시 ~ 15시

접수방법: 현장접수

2. 원화전시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 김유림 작가 그림책 '난 잘 도착했어,'

대상: 초등학생 이상 일시: 3.28.(토) 14시~15시 반

접수방법: 도서관 누리집 → 독서문화행사 → 문화행사 신청

체험행사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행사일정: 3.28.(토) 10:00 ~ 11:00

행사장소: 삼천동 200-9번지 일원(춘천수변공원)

행사내용: 묘목 배부 총3,400본(자두 외 2종)

배부수량: 3본/인(수종별 1본)

※행사일정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행사문의: ☎ 250-3512

2026 국립춘천박물관 명품 토크아보기 (전시해설)

행사일시: 3.25.(수) 14:30~15:00

행사내용: 문화유산 큐레이터 설명

- 선림원 터 보살상(보물), 다시 찾은 신라의 빛

참여방식: 참가비 무료, 현장 참여

관련문의: ☎ 260-1532, 1591



2026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2026. 3. 3. (화) | 15:00~19:30
공지천 다목적광장

일자	주요행사	장소
3. 3. (화) 15:00~19:30	체험행사	공지천 다목적광장
	공연	
	주행사	
	소원지 쓰기, 가훈 쓰기, 부림깨기, 신년운세 보기 다리코, 달맞이춤 시민 소망 기원 영상, 달집태우기	



체험행사

2026년 춘천맨발학교 걷기행사 안내

- 3.21.(토): 대전 계족산 맨발걷기
 4.11.(토): 가평 축령산 잣향기 푸른숲 맨발슬로우조깅
 9. 5.(토): 평창 오대산 월정사 천년숲길 맨발걷기
 10.24.(토): 대관령 숲길 트레킹
 관련문의: ☎ 010-2588-5218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몸퍼기생활운동 춘천운동원 무료체험

기간장소: 3. 3. ~ 3.31. 국민생활관 3층
 관련문의: ☎ 256-4460 / www.mompg.or.kr

모집안내

AI특화 맞춤형 취업역량교육, 1기 교육생 모집

모집대상: AI활용 및 실전형 취업코칭 희망 구직자
 모집기간: 2.23.(월) ~ 3. 6.(금)
 교육장소: 춘천시일자리지원센터 2층
 교육내용: 이력서 및 면접요령, 자기소개서 작성 등

교육날짜	교육내용	모집인원
3. 12.(목)	챗-GPT활용 구직지원	10
3.26.(목)	실전대비 모의면접 훈련	15
4. 9.(목)	챗-GPT활용 구직지원	10
4.23.(목)	스피치훈련&비즈니스매너	15

※ 1인 1회차 선택(중복참여 불가) 및 모집인원 총원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교육비: 무료

신청방법: 방문, 전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교육확정: 개별 통보

신청문의: ☎ 250-4912



온라인 신청하기

모집안내

2026년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가입대상

가입대상

- 기 업: 춘천시 소재 종업원 1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포함
- 근로자: 해당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춘천시민)

모집인원: 500명

신청기간: 1.29.(목) ~ 모집 완료 시까지

사업내용: 근로자 목돈마련 기회 제공

- 월 50만원(근로자 15, 사업주 15, 시 20) 5년간 적립 후
 만기적립금(3천만원+이자) 지급

신청문의: ☎ 250-3827, 256-3276

강원팜산업교육원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지원자격: 만19세 이상~만75세 미만 재직(실업)자로
 내일배움카드소지자 및 발급 가능자
 교육과정: 전기기능사 및 실무자 양성과정,
 생태조경실무자 양성과정,
 산림산업기사 과정,
 조경, 산림, 전기기능사 자격취득과정
 과정문의: ☎ 264-4300 / www.gw-farm.com

한국폴리텍III대학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국비무료 교육생 모집

교육대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교육기간 중 80% 이상 출석 가능한 자
 교육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춘천1캠퍼스(원창리),
 춘천2캠퍼스(우두동)

교육분야: 바이오멸균·배양 / AI활용 데이터관리
 홍보영상 / 설비보전·공유압 / 에너지관리 /
 전기·PLC / 굴삭기·지게차

교육기간: QR코드, 홈페이지, 전화 문의

전화문의: ☎ 250-9710~3

홈페이지: sanhak.kopo.ac.kr/chuncheon



모집 신청하기

알림마당

시민과 가까운 소식, 생활에 도움되는 소식을 전합니다

모집안내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모집

신청대상: 24세 이하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

신청기간: 상시모집

이용방법: 전화 신청 후 센터 방문하여 등록

프로그램: 검정고시·수능, 진로준비, 문화체험,
심리상담, 학습상담 등

교육장소: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15202호
(한림대정문 우리은행 옆)

관련문의: ☎ 256-6214

평생학습관 제1기 특화교육 수강생 모집

모집과정

- 1) 내 손으로 빛는 한방보약학교
- 2)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기초과정 이수자에 한함
- 3) 공간부터 지갑까지, 살림정리학교
(살림경영전문가 2급 자격 취득가능)

신청기간: 2.23.(월) 09:00 ~ 3. 6.(금) 18:0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배워봄"

수강방법: 대면교육

문의전화: ☎ 245-5191

열린점자교실 수강생 모집

모집대상: 점자에 관심 있는 춘천시민 누구나

교육기간: 3.17. ~ 4.21.(6회) 매주 화요일 10:00

교육장소: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회관 5층 대회의실
(동면 소양강로 110)

교육내용: 한글점자 쓰고 익히기, 점역·교정사 자격시험 소개

신청기간: 2.23.(월) ~ 3.13.(금) 선착순 15명

수 강 료: 무료 관련문의: ☎ 262-1920

하나돌봄어린이집 안내

이용대상: 만 1세 이상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영유아

이용시간: 토/일, 공휴일 09:00~18:00

이용요금: 시간당 3,000원

신청방법: 하나돌봄홈페이지

www.hanadolbom365.com

관련문의: 파크푸르지오어린이집

☎ 244-7732,

☎ 010-4393-7732



이용 신청하기

고혈압·당뇨 교실 1기 참여자 모집

운영기간: 3.5.(목) ~ 4.23.(목) / 목요일 14:00~15:00 / 총 8회

운영장소: 춘천시보건소 별관 지하1층 교육실

신청대상: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질환자 및 교육
희망자 등 50명

신청기간: 3. 4.(수) 까지

신청방법: 전화신청 ☎ 250-4562

평생학습관 제1기 비대면교육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2.23.(월) 09:00 ~ 3. 6.(금) 18:0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배워봄"

모집과정: A디지털, 외국어, 인문교양

선발방식: 전자추첨

교육기간: 3.23.(월) ~ 5.15.(금) / 8주



수강 신청하기

2026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신청기간: 2. 9.(월) ~ 3.31.(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인
만 18세 ~ 45세

- 가구원의 가구소득인정액이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범위에 해당되는 미취업 청년

※ 재참여제한 2년(2024년~2025년 사업 참여자 참여 불가)

지원항목: 교육비, 교재비, 식비, 교통비, 면접활동비 등

지원내용: 취업준비쿠폰(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강원일자리정보망)

job.gwd.go.kr/gwjjob

사업문의: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 250-4434)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일자리부 청년센터

☎ 256-9575, 9579, 9580



모집안내

국립춘천박물관 열린전시실 외부전시 공모

공모취지: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의 전시 기회 확대
전시장소: 국립춘천박물관 어린이박물관2층 열린전시실
전시기간: 4월 ~ 5월 (2회차)
공모분야: 회화, 공예, 도예, 기타 전시작품
모집기간: 2.19.(목) ~ 3.11.(수)
관련문의: ☎ 260-1555



공모하러가기

시민역사학교 '히스토리아'

관련문의: ☎ 263-8903 / 010-9287-8906

1. 역사강좌

강의일시: 3. 10.(화), 17:00
강의장소: 춘천시청 지하1층 다목적회의실
강 의 명: 세계로 나아가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강 사: 박맹수(전 원광대 총장)

2. 역사답사

일정인원: 3.27.(금) / 35명 출발시간: 7:30, 호반체육관
답사지역: 인천(백범김구 역사거리 등)
접수기간: 3월1일부터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문자 또는 카톡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3.10.(화) ~ 3.16.(월)
강좌내용: 성인드림, 청소년드림, 통기타
교육장소: 명동 브라운5번가 6동 3층
신청방법: 홈페이지(www.cc1318.or.kr)
문의전화: ☎ 251-1318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프로그램 모집

모집기간: 2.23.(월) ~ 3.20.(금)
교육장소: 효자종합사회복지관 효자동 사랑방
프로그램: 한글, 노래, 줌바/라인댄스, 칼림바
관련문의: ☎ 070-4372-3085

2026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모집

교육내용: AI기반 콘텐츠 디자인·굿즈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스마트케어 사회복지 실무자 양성과정
카페 실무형 바리스타&디저트 취·창업 과정
교육문의: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춘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70-4048-6960, 6952

2026 레저관광[에코시리즈] 신청 안내

신청분야: 에코투어(자전거+카누+붕어섬 둘레길 트레킹),
에코라이드(자전거 가이드 투어)
운영기간: 3.28. ~ 11.30. (7~8월 휴서기 제외)
신청기간: 3.16.(월) 10:00 ~ 선착순 마감
참 가 비: 춘천시민(16,000원),
관외(20,000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www.clt.or.kr
관련문의: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 245-5997



레저관광 신청하기

도시정원 관리자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일시: 3.16(월) ~ 5.4(월) / 매주 월·수 14:00~17:00
교육장소: 전문 교육장(서부대성로 169-1, 2층)
모집대상: 만 40세 이상 춘천시민 15명 (선착순 접수)
강의내용
[실전기술] 나무 전정(가지치기), 식재, 병충해 관리 실무
[자격취득] 산림청 등록 '도시정원 관리자' 민간자격 과정
[현장중심] 사계절 정원 디자인 및 연간 유지관리 계획 수립
수 강 료: 자부담 15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관련문의: 춘천미래동행재단 ☎ 242-5060



수강 신청하기

모집안내

2026년 1학기 한글·영어 성인 학습자 모집

모집대상: 한글·영어 기초 교육이 필요한 성인

모집과정

- 한글 기초반(ㄱㄴㄷ) / 한글 중급반(받침) /

한글 심화반(문장·맞춤법)

- 영어반(알파벳·단어·간판읽기·회화)

수업시간: 평일 19:00~21:00

관련문의: 예맥야간학교 ☎ 256-3668

춘천 SDGs 시민대학 참여자 모집

강의일정: 3.31.(화)~6.23.(화) / 매주 화 19:00~21:00

모집인원: 40명

신청방법: 누리집(chuncheon21.org) 혹은 QR코드

강의내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와 실천 과제

교육장소: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관련문의: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243-9800



참여 신청하기

춘천간호학원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과정 모집

모집대상: 고졸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훈련기간: 2026년 3월 20일 ~ 2027년 2월 18일

신청기간: ~ 4월 2일 **모집인원:** 31명 (선착순 모집)

관련혜택: 내일배움카드소지 시 국비지원,

매월 훈련장려금지급, 실습복/교재 무료제공

모집문의: ☎ 264-9978

'카카오 시니어 티처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강의일시: 3. 3. ~ 3.31. / 주 2회, 총 18시간

강의장소: 하나 50+컬처뱅크 2층 교육장

모집인원: 50세 이상 춘천시민 20명

강의내용: 카카오톡 활용, 교통, 간편결제 시스템 교육 진행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전화신청

문의사항: 춘천미래동행재단

☎ 242-5060 / 070-4240-4199



공모 주제

- 대상 동물: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등 자연에서 촬영된 야생동물 사진
- 허용 범위: 동물 초상, 행동, 포식, 번식, 서식지 전경 등(야생동물 반드시 포함)
- 제외 대상: 반려동물, 가축·농장 동물, 실험동물, 기타 사육·관리 동물

공모 일정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8월 10일
- 입상작 발표: 2026년 9월 21일(공모전 홈페이지 공시 및 개별 통보, 일정 변동 가능)
- 상세 내용: 공모전 홈페이지 참조(<http://wildlife.kangwon.ac.kr/main/main.html>)

시상 내역

상격	상금	후원기관
대상(1명)	100만원	강원대학교총장
최우수상(1명)	50만원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국회의원 허영,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대한수의사회, 산양사양노루센터, (사)한국사양노루보호협회, (주)한국환경경생태연구소, (주)SOLVET, (주)포스트바이오, 비온랩서비스, G1방송
우수상(4명)	30만원	
장려상(6명)	10만원	
특별상(3명)		
아차상(10명)	기념품제공	

문의처

- 강원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 센터장 안상진 교수(☎ 033.250.7504)
-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 사업 단장 박선일 교수

태극기달기는 나라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집 태극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춘천시는 국경일마다 태극기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게양될 수 있도록 태극기 무상 보급과 판매처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태극기가 없거나 새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태극기 무상 보급안내

대상 : 관외전입자, 신혼부부, 체류외국인, 국가유공자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
내용 : 가정용 태극기 가구당 1세트 지원



태극기 판매처 안내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
※ 관내 대형마트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태극기는 우리의 일상”

다가오는 3.1절에 태극기를 다는 작은 실천이
대한민국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태극기, 잊지 말고 달아주세요! 춘천시가 함께합니다.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총무과 ☎ 250-3232

독자와 함께

봄내 독자 참여 코너

빙어낚시로 낚은 춘천의 맛

첫 기사부터 사진이 참 멋졌습니다. 빙어낚시의 즐거움이 생생하게 전해져, 마치 직접 낚시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즐거움 뒤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공무원들의 이야기와 안전관리 내용까지 담겨 있어, 더욱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빙어낚시를 통해 춘천의 또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자 김기태



춘천의 겨울은 역시 빙어낚시조

임신 중 지촌리에서 남편과 둘이 빙어낚시를 했던 추억이 기억나네요. 너무 추웠지만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태어나 두 살이 되었고요. 이번 겨울은 둘이 아닌 셋이서 빙어낚시 하러 가야겠어요!

독자 신진현

보이지 않는 산불, 재선충 기사를 읽고

숲에도 눈에 띄지 않는 재난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작은 벌레 하나가 소나무를 말라죽게 하고, 산의 풍경까지 바꾼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겉으로 멀쩡해보이는 숲일수록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 화이팅!

독자 정봉숙



꾸준함이 만든 우승

춘천시청 컬링팀의 이번 우승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성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팀워크와 집중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행정의 꾸준한 지원과 선수들의 성실함이 어우러진 모범적인 사례라 느껴졌습니다. 이 기세가 국제무대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독자 장려진



봄내소식지를 배달하는 즐거움

매월 아파트 출입구에 꽂혀 있는 봄내소식지를 나는 습관처럼 다섯 부 챙긴다. '봄내'를 접하기 어려운 지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어느덧 봄내소식지 배달맨이 된 지도 4년째다. 그분들로부터 늘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면, 나 또한 괜히 마음이 따뜻해진다.

독자 신수길

봄내에서 본 의암호 포토스팟, 다녀왔어요

얼마 전 눈이 내렸던 날, 공지천을 산책하다가 물방울을 닮은 조형물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봄내에서 봤던 물강아지였거든요. 강가를 지키는 물수달까지 천천히 걸어가 보았습니다. 그날의 날씨와 기분이 통째로 저장된 것만 같은 하루였습니다. 독자 이상너



소식지 구독 신청

봄내소식지가 홈페이지를 통한 구독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메일 서비스와 읍·면 우편 배송 모두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단체 여부, 원하는 부수를 표기해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bomnae.chuncheon.go.kr

신청기간: 매달 20일까지



421호 '해빙기' 삼행시 당첨작

해가 길어지며 소양강 물빛이 찰랑이고
빙판이 풀린 의암호에는 봄기운이 스민다
기척처럼 다가오는 계절의 경계, 춘천의
해빙기

독자 안 성 현

421호 독자 삼행시 당첨자

김경아, 김무진, 김복란, 김상민, 김영진
박미나, 배수휘, 송영선, 심혜인, 안성현
이만준, 조숙희, 조예린, 지명숙, 최예나
최유진, 한채희, 함초희, 허인선, 홍현주

다음 독자 삼행시 주제는

불조심 입니다.

이달의 춘천시 통계 (2026. 1월 말 기준)

-  인구 290,468명(-403)
-  가구 138,184세대(-145)
-  출생아 122명
-  65세 이상 64,682명(+350)
-  자동차 152,045대(+109)



“에코투어 & 에코라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자 참여 안내

원고와 사진을 매달 10일까지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시면 당첨되신 분께 원고료를 드립니다. 지면 관계상 원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편 24264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홍보담당관 이메일 bomnae1993@gmail.com

봄내소식지 독자 참여코너 안내

1. 삼행시 응모(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1만원) **성명, 핸드폰 번호(본인 명의) 반드시 기재**
2. 독자와함께, 봄내한컷, 로컬푸드 레시피 응모(원고료 3만원 지급), 우리들 이야기 응모(원고료 5만원 지급)
성명,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도로명주소 반드시 기재

봄내홈페이지(bomnae.chuncheon.go.kr) 이벤트 안내 봄내퀴즈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5천원(정답자 중 100명 추첨)



걷는 순간, 예술이 된다

소양아트서클

SOYANG ART CIRCLE

3월, 소양아트서클이 춘천시민을 찾아옵니다!